碩士學位論文

# 동기유발을 통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 중학생의 통합교과 독서지도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美 子

2007年 12月

# 동기유발을 통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 중학생의 통합교과 독서지도를 중심으로 —

指導敎授 金 昞 澤

金 美 子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2月

金美子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12月

# A study on the guidance method for reading with a motivation

— focusing on the guidance method for reading
in the integrated subj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

Kim Mi-j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yung-tae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fillment of the requir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7.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Kim Byung-taek, Prof. of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대상과 방법 ····· 5
   3.1. 연구 대상 ····· 5
   3.2. 연구 방법 ····· 5

## Ⅱ. 이론적 배경

1. 독서지도와 동기유발 ····· 8
   1.1. 독서지도의 기본방향 ····· 8
   1.2. 독서활동에 따른 동기유발 ····· 10
   1.3. 독서클럽활동을 통한 긍정적 태도 강화 ····· 11
2. 통합교과 독서지도 ····· 13
   2.1. 교과연계 독서지도 ····· 13
   2.2. 문학 텍스트 독서지도 ····· 15
   2.3. 비문학 텍스트 독서지도 ····· 16

## Ⅲ. 통합교과 독서지도 사례 연구의 실제

1. 문학 텍스트 독서지도 ····· 18
   1.1. 고전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 18
   1.2. 외국문학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 25
2. 비문학 텍스트 독서지도 ····· 34
   2.1. 과학도서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 35
   2.2. 미술을 통한 역사읽기 독서지도 ····· 44
   2.3. 인물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 54

## Ⅳ.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과 논의

1. 조사 결과 분석 ····· 62
2. 독서능력의 변화 ····· 63
3. 독서태도와 독서인식의 변화 ····· 64

## Ⅵ. 결론 ····· 66

■ **참고문헌** / 68
■ **Abstract** / 71
■ **부 록** / 74

# 표 목차

<표 1> 독서지도 계획안(고전문학) ····· 21
<표 2> 독서지도 계획안(외국문학) ····· 28
<표 3> 독서지도 계획안(과학도서) ····· 37
<표 4> 독서지도 계획안(역사) ····· 47
<표 5> 독서지도 계획안(인물) ····· 57
<표 6> 설문 결과 ····· 62

# 자료 목차

<자료 1> 통합교과 지도안 ····· 20
<자료 2> 등장인물 비교 ····· 23
<자료 3> 풍자만화 그리기 ····· 24
<자료 4> 통합교과 지도안 ····· 27
<자료 5> 마인드맵 ····· 30
<자료 6> 독서토의 ····· 31
<자료 7> 독서감상문 ····· 33
<자료 8> 통합교과 지도안 ····· 36
<자료 9>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 ····· 39
<자료10> 현대 과학이 당면한 이슈 · 1 ····· 40
<자료11> 현대 과학이 당면한 이슈 · 2 ····· 41
<자료12> 글쓰기 ····· 42
<자료13> 글쓰기 ····· 43
<자료14> 통합교과 지도안 ····· 46
<자료15> 그림 속 역사읽기 ····· 49
<자료16> 독서감상문 ····· 52
<자료17> 통합교과 지도안 ····· 56
<자료18> 인물연대기 ····· 59
<자료19> 벤 다이어그램 ····· 60

# Ⅰ. 서 론

## 1. 연구 목적

다변화된 세계에서의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필요한 생존 전략이며,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삶에 유용하게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성패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책을 읽는 행위(독서)가 직접적·간접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수단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독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삶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게 만들고 지적인 능력을 계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우리의 학교 교육은 사실상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적인 학교생활로 인해 독서를 멀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이념의 부재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은 청소년기의 독서에 대한 능동적 태도를 저하시키고, 책을 읽더라도 입시준비를 위한 수동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민독서실태 조사'[1]에 따르면 학생 연령대별 연평균 독서량은 초등학생 24.0권, 중학생 10.2권, 고등학생 7.7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책과 멀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 10명 중 1명은 1년 내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장애 요인으로는 학과 공부나 학원 수강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독서 습관 부족, 컴퓨터·핸드폰 이용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을 들었다. 학생들 스스로도 폭넓은 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교육적 환경 때문에 독서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서 행위란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는 주체적,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는 개인에게 독서의 의욕과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개개인의 바람직한 독서 인격 형성을 위하여 독서 동기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유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각종 전자오락기기 및 영상매체 등으로 인해 책을 멀리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연령에 따른 공통의 화제를 가지게 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서 제각기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같은 책을 함께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긴하며 시급한 일일 것이다.

읽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생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있다. 즉,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도 기꺼운 마음으로 책을 찾고 읽을 수 있는 태도를 지닌 사람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다.[2] 책 읽기가 지

1) 이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시간이 10년 전에 비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일반소설' 외에 무협지, 만화, 추리소설 등 오락물 위주의 독서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그것이 삶에 구체적이고 유용하게 적용되지 못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서가 자신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체험한 독자는 지속적으로 독서를 할 것이며 습관화되어 평생 독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독서에 대한 욕구와 흥미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독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평생 독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독서의 재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독서 교육의 목표가 평생 독서자를 기르는 데 있고 독서가 삶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독서 교육의 목적이고 목표[3]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청소년을 평생 독서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서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독서를 통해 유익한 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의식과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독서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의 교과연계 독서활동을 중심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독서란 흥미에 의하여 유발되고 동기가 마련되어 흥미를 다시 발달시키고 그 흥미에 의하여 독서와 그밖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나선상의 순환을 하면서 발달하는 것'[4]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과서의 이해를 돕고,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확장된 사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둘째, 독서를 통해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교과내용을 폭넓게 접하고 이해함으로써 심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독서는 본질적으로 사고를 하는 과정이다.[5] 저자가 독자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신활동의 자극을 통한 사고력이 증진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재구성될 때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셋째, 독서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과연계 학습은 실용적이고 균형 있는 독서활동이 되도록 유도한다. 다양한 장르에 걸친 광범위한 독서는 흥미본위로 이루어지는 선택적인 독서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경험을 만들어낸다. 또한 국어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중심의 읽기에서 문학과 비문학의 균형적인 읽기를 바탕으로 교과영역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과정의 경험은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독서지도의 어려움은 독서지도 시간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야기된 것이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교과연계를 통한 독서지도는 학업성취도와 교과의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꾸준한 독서를 가능케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2) 한국독서학회, 『21세기 사회와 독서지도』, 박이정, 2005, 138쪽.

3) 한철우 외, 『문학중심 독서 지도』, 대한교과서, 2004, 52쪽.

4) 조성균, 「독서 흥미와 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공주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9쪽.

5) 한국독서학회, 앞의 책, 59쪽.

## 2. 선행 연구 검토

독서지도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은 그동안 일반적인 독서지도에 대한 연구나, 기능 중심의 읽기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문학읽기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의 독서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교과학습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와 연계된 독서지도는 교과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읽기를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 한 과목에만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특정 전공분야의 책만을 선정하게 되고 과목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도서 선정에서 독후활동에 이르기까지 일부 교사의 개인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사안들을 고려하여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교과적인 독서지도를 수행해 나간다면 학생들에게 과목별 읽기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교사 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독서지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민희동[6]은 독서지도가 인격형성에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국어 교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독서지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교과에서 학년별 학습 내용에 따른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독서지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경숙[7]은 독서 능력과 학습 능력의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활동의 소홀함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여러 학문 분야의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독서능력과 독자로서의 자신감을 신장시키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독서 능력은 가장 강력한 학습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장경실[8]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서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과내의 독서활동에서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교과학습의 분위기와 토의·토론 학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그는 교과연계를 통한 독서지도는 학생들의 읽기 활동 능력 신장과 학업성취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교과연계를 통한 독서지도가 학교교육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윤종수[9]는 중학생의 독서 저해 요인으로 열악한 독서 교육의 환경과 지속적인 관심의 부족, 교과서 중심 교육을 꼽았다. 또한 독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교과에서 학습 단원과 연계한 독서지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한다.

정원락[10]은 각종 전자 오락기기와 영상 매체로 인해 책을 멀리하려는 학생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책을 읽게 하는 것보다 소집단 별로 함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서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그는 실험을 통해 독서가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교과연계 독서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6) 민희동, 「효과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7) 박경숙, 「읽기 영역으로서의 독서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8) 장경실,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교과연계 독서교육에 관한 모색」,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9) 윤종수, 「중학생의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금오공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10) 정원락,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독서습관 형성 방안 연구」, 경덕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남영은[11]은 교과연계를 통한 독서지도가 학생들의 독서활동 능력 신장, 학업성취도, 문학작품 읽기 능력 향상 등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독서가 학습과 연계된다면 독서는 전교과 학습의 필수적인 과정이 되게 되며, 학생들은 자연히 좋은 독서습관을 가지게 되어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독서를 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민주[12]는 통합적인 주제 중심의 문학읽기를 통해서 독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나아가 비문학 영역에 대한 관심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주제 중심의 독서 방법이 여러 장르와 시대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외에도 백진현[13], 윤은희[14]는 청소년기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도서를 선택하여 독서 클럽 활동을 통한 폭넓은 독서를 하게 만듦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자아를 정립하고 삶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중학생의 책읽기에 대해 선행 연구 논문들은 한결같이 청소년기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기 효과적인 지도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들은 학교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서지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시하고는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남영은, 장경실, 박경숙의 경우에는 읽기능력 신장방안의 모색 차원에서만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어교사가 수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국어읽기 영역지도 방법에 대한 범주 안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칫 독서가 범교과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지니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정원락, 윤종수, 민희동의 경우, 중학생의 독서실태를 파악하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교과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어과 독서지도 중심으로 독후감 쓰기, 독서토론 등의 활동만을 보여줄 뿐 교과연계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독서환경이 현 공교육의 문제점임을 지적하면서 교사연수를 통한 방법의 모색만을 제시할 뿐 유용한 실천적 방법의 적용사례는 보여주지 못한다.

이민주의 경우에도 주제중심 문학 독서에 따른 지도 사례를 보여줄 뿐, 타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소설 중심으로 지도가 행해지는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박미정[15], 김소영[16]은 국어 영역 외의 독서지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심화학습으로서의 활동이 사회와 수학이라는 두 과목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독서지도가 국어교과만을 중심으로 행해지거나, 교과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독서량에 대한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정된 내용의 과목별 독서지도는 자칫 독서가 주제나 분야별로 명료하게 구분된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소극적인 독서태도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지도가 교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지 못하

---

11) 남영은, 「교과연계 독서지도를 통한 문학작품 읽기 능력 신장 방안」,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12) 이민주, 「주제 중심의 문학 작품 독서 교육 방법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13) 백진현, 「독서 실태 분석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부경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14) 윤은희, 「독서 클럽 활동을 통한 문학지도 방법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15) 박미정, 「내용교과 독서가 교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16) 김소영, 「독서자료를 활용한 수학학습지도가 학업 성취도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는 데에 따른 한계이기도 하다.

## 3. 연구 대상과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독서지도를 통해서 올바른 정서함양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와 연계된 통합교과적인 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중학생 시절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늘어난 교과목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자연스럽게 책을 멀리하게 된다. 또한 개별적으로는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험에 대한 부담과 경쟁심 때문에 여유 있게 책을 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어릴 적부터 독서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학생들인 경우 책 읽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교사나 부모의 권유로 책을 읽게 되는 경우에도 흥미 위주의 쉬운 도서를 선호하게 된다.

독서에 대한 욕구나 흥미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독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한 그 욕구나 흥미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도 그 능력이 불균형하게 발달하게 되어 인격적 조화에 결함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에게는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동기유발은 내적으로 독서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발생되고, 외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책과 교사의 적절한 조언, 독서 환경의 정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과정을 통한 동기유발은 독서를 습관화하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학생들 스스로가 독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풍부한 독서 자료를 준비하고, 교과와 연계된 독서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교과에 대한 흥미와 심화학습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2학년[17]을 대상으로 각 6명씩 2팀의 소그룹을 선정하고 1년간의 독서활동을 통해서 변화된 독서능력의 추이를 관찰해 보고자 한다. 독서활동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로 정하고, 체계적인 독서 전·후 활동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또한 독서지도를 받기 이전의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살펴보고, 교과연계 독서활동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후 중학생의 교과연계 독서지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3.2. 연구 방법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를 한 독자는 대체로 그 주제의 내용에 익숙하게 된다. 교

17) 정확히는 1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2학년 1학기가 끝나는 8월까지 1년간 이루어졌으며, 중학교 1학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9월부터 시행되었다.

과와 관련된 폭넓은 독서를 하게 되면 학습자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어려운 어휘와 개념들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독서는 심화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과서와 관련된 독서 자료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단행본이나, 신문과 잡지, 인터넷 자료나 백과사전 등 읽기 자료에서부터 영상자료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서지도를 함에 있어 단행본을 중심으로 독서를 하되, 교과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독서가 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기로 한다. 또한 소그룹 독서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변화와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성취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독서지도 방법에 있어서는 중학교 2학년으로 구성된 독서클럽 2팀, 12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2시간씩 소그룹 지도가 이루어졌다. 소그룹 독서지도는 독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8]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소그룹 활동은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감정 표현이 비교적 자유롭고 의사 표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참여의 기회가 많아져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평가를 받을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학습의 동기가 제고된다. 또한 개인이 중시되면서 책임감도 그에 따라 증대되고 자발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행위가 양성된다.

도서는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가 선정된다. 한 달에 2권이 필독서로 선정되어 1년 동안 총 24권을 정독하게 하며, 내용면에서도 문학과 사회, 과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골고루 읽을 수 있게 배려한다.[19] 또한 독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 교과목에 한정되지 않고 영역을 넘나들며 통합교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문학 텍스트 2편과 비문학 텍스트 3편을 토대로 전개한 수업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 모형을 제시한다. 독서활동은 독서 전과 독서 후의 활동으로 나누어 지도한다.

독서 전 활동으로는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자세로 독서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텍스트의 주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확장된 사고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독서 전 지도의 최대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 있게 책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읽는 과정에서 독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심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텍스트와 관련된 사전 배경지식의 습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함에 유의한다.

독후활동은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하여 지도하였다. 문학의 경우 독해를 심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수업모형이 이루어진다. 문학의 구성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심화학습으로는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작가의 시각을 통해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책을 읽고 나서 가지게 된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비문학의 경우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론 중심의 활동을 배제하고 텍스트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현실 문제와의 비교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관심영역의 확대는 비문학 텍스트에 대한 독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

18) 한철우 외, 앞의 책, 317~321쪽.

19) 본 논문, 부록 2, 75쪽.

요하다.

독서지도의 핵심적 요소인 독해 능력을 핵심적으로 신장하기 위한 독서지도에서는 학생들의 기존 지식의 활성화, 독서활동 안내, 능동적이고 집중적인 읽기 활동의 강화, 텍스트에서 수집한 개념적 지식의 강화, 독서 과정에서의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활동의 강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 유도 등이 핵심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

# Ⅱ. 이론적 배경

책은 인간 정신이 응집된 사고력의 표현이다. 또한 그것은 다양한 정보와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된다. 독서는 그 바탕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기의 독서경험은 건전한 가치관의 정립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나 습관은 독서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책을 재미있게 읽은 독자가 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책을 통해 호기심을 충족시킨 경험이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맛본 경험 등은 모두가 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서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적인 독서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그래서 작품을 비판적으로 읽게 하는 점이 늘 강조되어야 한다. 비판적 독서란 자신과 저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글에 개성적으로 반응하고, 개성적으로 판단하는 읽기를 말한다.[20] 즉,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고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읽기이며, 목적이나 경험, 교양에 비추어 가면서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대하여 음미하고, 가치, 질, 진실성, 정확도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읽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독서가 능동적, 의욕적, 적극적 학습의 한 방법이며, 단순 지식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터득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독서지도 방법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독서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아실현을 성취하게 하고 사회적 태도를 길러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정서, 심리 및 행동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춘기에 책을 통한 간접경험은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서가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인 즐거움을 동반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는 학생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공감함과 동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천적인 독서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1. 독서지도와 동기유발

### 1.1. 독서지도의 기본방향

독서지도의 일반적인 목표는 현재의 실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독서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바람직한 독서인으로 육성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표는 연령이나 계층, 실시 장소와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학습자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

20) 독서지도연구회, 『독서지도사전』, 경인문화사, 1975, 221쪽.

다. 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독서를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반드시 올바른 독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더불어 독서의 저해 요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교사가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그들의 발달 정도에 따라 독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알맞은 책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초적인 문식성 능력을 획득한 독자들은 여러 교과의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능숙한 독서 전략과 학습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또 내용 교과적 독서는 포함된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혼자 읽어내기가 힘들다. 고급독서기의 독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독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 교과적 테스트를 읽을 때에는 어휘, 사실, 개념, 가치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지도 대상자들의 현실적인 독서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장차 사회인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독서인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지도의 구체적인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서지도의 필요성을 몇 가지 들어볼 수 있다.[21]

첫째, 올바른 독서 습관과 자발적인 독서태도를 배양시키기 위해서 독서지도는 필요하다. 복잡한 사회구조를 가진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인격 형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과 정보를 간접적인 수단인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서 자료와의 접촉은 생활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독서와 올바른 독서태도를 갖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독서 자료 선택 능력의 배양과 독서 흥미의 편향을 막기 위해서 독서지도는 필요하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출판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과 조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정보 자료 선택의 능력이 요구되며, 그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절실하다.

셋째, 이해력과 감상력을 증진시켜 독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독서지도는 필요하다. 학생들은 매스컴의 상업적 수단에 대해 감식력이 약한 편이다. 따라서 바른 가치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서를 통한 발전적인 사고 능력과 실생활에서의 응용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독서지도는 필요하다. 학생들을 방임해 둠으로써 흥미 본위로만 읽고 마는 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발전적인 사고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 직접 응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독서지도는 독서문제아[22]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동안 독서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의 하나는 여가 선용이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과 논술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모두에는 교과학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독서는 시간이 허락할 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책 한 권 편하게 읽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공교육이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

---

21) 손정표, 『신독서지도방법론』, 태일사, 2005, 91쪽.

22) 독서문제아는 도서에 대하여 부적응 현상을 일으켜 정상적인 독서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동·학생을 말한다. 이러한 독서문제아는 읽기 자체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과 독서의 능력과 행동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손정표, 위의 책, 305쪽)

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지도는 대부분 국어과목에 한정된 감상문 쓰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양상은 오히려 책을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읽기에 대한 부담감만을 가중시켜 왔다. 따라서 독후감 쓰기 중심의 획일적인 독서지도에서 독서 주체인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독서지도 방식이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과와 연계된 형식의 독서지도 방법을 구안하여 실천해야 한다.

학생의 독서능력을 올바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극적이고 숙련된 교사의 지도와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관심은 학생의 능력 계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적극적인 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독서지도가 융통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 이는 같은 학년이라도 지역과 환경,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독서지도가 다르게 적용돼야 함을 의미한다.

문학작품의 경우에도 고학년이 될수록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혼자 읽는 독서는 대부분 단순한 감상을 위한 독서이며 개인적 독서이다. 그러나 독서지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독서경험은 독서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며, 신화와 전설, 신념, 가치, 철학 등의 문학적 전통을 경험하게 한다. 즉, 교사의 주도하에 혹은 교과서에 선정된 작품을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독서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교육은 교과 중심의 학습과 결과 중심의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독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폭넓은 사고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습만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할 것이다.

## 1.2. 독서활동에 따른 동기유발

독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일반적인 발달단계, 지능지수나 독서경험 그리고 독서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독서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된다. 이 중 심리적 환경은 독서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심리적 환경에서는 독서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 줄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그리고 만족도에 따라 일의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기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욕구가 생기도록, 그 행동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내부적 특성이다. 독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동기는 무엇인가를 읽고 싶어하는 욕구, 혹은 끝까지 읽어 내려는 욕구라고 볼 수 있다. 동기가 있는 학생은 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을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으면서도 지루해 할 수 있다. 이때 어려움은 능력의 문제에서보다는 흥미가 떨어진 데서 나타난다.[23] 따라서 흥미

23)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교재집필연구회, 『독서자료론・독서지도 방법론』, 위즈덤북, 2006, 277쪽.

는 독서동기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곧 책읽기에 대한 성과 즉 만족한 경험으로 이어진다. 내부적 요인으로 흥미 외에 관심과 만족도, 독서경험 등에 따라서도 동기유발은 이루어진다.

한편 외부적 요인인 보상에 따라 동기유발이 달라질 수 있다.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경험한 경우나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기유발이 과제를 해결하려는 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의 결과에 만족하게 함으로써 다음 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하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보상으로 주어진 학습 결과에 대한 만족이 즐거움이 되어 돌아오고, 그 즐거움이 다시 학습을 하려는 동기를 유발한 결과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활동을 고려함으로써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통해서 동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교사는 또한 구체적인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기유발이 잘된 경우에는 주위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 이는 독서 만족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독서의 행위를 통해 동기를 유발하여 독서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즉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요인인 여러 가지 욕구나 태도, 가치관과 외부적 요인인 자극이나 장면 등의 환경조건을 결합시켜 독서행동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지적·정의적 경험과 독서 효과로 인한 보상을 체험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독서 의욕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24] 학생들이 어떤 책의 내용에 대해 공통의 화제로 삼는 것은 흥미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것은 또한 독서 후 감상에 대한 상호 토의·토론 활동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또한 그것은 토의·토론 활동을 통하여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높이고 독서 의욕과 독서 흥미를 확대시킨다.

독서활동의 결과는 기능적인 면에서 효용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 스스로가 독서를 통해 교과학습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나 내용면이 실질적으로 교과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교과학습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독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경우에만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독서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다른 책 읽기에 대한 자연스런 유도가 가능해질 것이다.

## 1.3. 독서클럽활동을 통한 긍정적 태도 강화

사람은 대체로 의미 있는 타인의 행동을 따르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의미 있는 타인이 책 읽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기대를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읽기 태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청소년은 또래 집단을 따르는 일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클럽과 같이 책 읽기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서로를 돕도록 격려하고 협력하는 주선자

24) 손정표, 앞의 책, 65~67쪽.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아무리 작은 성취를 보였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성취를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의 독서생활에 대해 생각하게 도와준다.

독서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책[25]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선정된 책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 책 중에서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주제가 드러나는 책이어야 하고, 읽은 후에 많은 생각들을 유도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독서클럽활동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의를 진행하는 실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적절한 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독서 후 토의나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토의·토론거리가 있는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토의·토론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실적인 삶의 논쟁거리, 인생의 중요문제, 가치관의 문제 등과 같은 주제가 좋다. 이는 적절한 책을 선정했는가의 여부가 독서클럽의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풍부한 독서자료를 준비하여 그들이 관심을 가지기 쉽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독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학생들은 책에 대해 친근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독서클럽은 실제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수준이 상회할 경우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지루함으로 인해 의욕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관심 영역 안에 있는 책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서클럽 활동은 학생들의 일상적 언어 경험을 확장시켜 준다. 클럽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의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며, 공동으로 책을 읽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책을 읽고 나서 학생들 각자의 감상과 반응이 다를 때에 비로소 역동적인 토의는 가능하다. 작품을 읽은 학생들의 감상과 반응이 같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서 토의에서는 학생들의 고유한 해석과 반응이 격려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음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 협력적인 독서클럽 활동은 독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만든다. 구성원들의 협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도성, 화술법, 표현법 등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만족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결과에 따른 변화는 독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태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결국 또래 집단의 여러 독서활동은 학습자의 독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든 교과가 고유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독서지도는 중요한 학습지도 방법의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서는 단지 독서 행위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별, 관련 단원별, 혹은 주제별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교과학습 중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 나가도록 읽기의 목적이 뚜렷한 능동적 읽기를 유도해야 한다. 학습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는 물론 내용과 주제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는 텍스트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교과학습과 연계된 독서는 교과학습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좋은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므로 학교

25) 중학생들에게 좋은 책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 '독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책', '언어 사용이 바르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책', '교훈적 요소를 드러내는 책'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학생들은 흥미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을 꼽았다.(한국독서학회, 앞의 책, 365쪽.)

교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독서를 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 2. 통합교과 독서지도

### 2.1. 교과연계 독서지도

중학교의 교육 목표[26]는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지며,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여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과목별 교과 지도의 기본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 교과는, 언어 사용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습을 통해 언어활동과 국어 지식, 문학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하고도 건전한 비판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이해하고 심미적 정서를 기르며,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 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여러 교과 교육을 통해 획득한 능력 및 태도를 통합하여 인격 형성에 의미 있게 연결시켜 주는 교과 통합의 기능을 지닌다. 가정, 학교, 사회생활을 통하여 획득한 여러 가지 규범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하나의 통합된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가치 통합적인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인격과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도덕 교과는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 교과의 경우, 사회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한다. 사회생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의식을 기른다. 또한 공동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인,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다양한 정보와 탐구 방법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한다.

과학 교과학습을 통해서는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한다.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실생활에 이를 활용한다. 또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도 학습의 기본 방향이다.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개인과 가정, 산업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

26)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제 7차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3쪽.

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기른다. 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기른다. 체험 학습을 통해서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을 기르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독서는 해당 교과의 학습을 촉진한다. 교과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독서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활용하면 학습을 좀더 쉽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단지 독서 행위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목별, 관련 단원별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들의 학습 방향과 목표는 개별적인 학습도 중요하지만, 독서를 통해 교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과연계 학습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시각으로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주제 의식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들여다봄으로써 역사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또한 그 속에서 시대의 도덕관이라든가 인생관을 살펴보면서 시대적 상황에 따른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이 단순히 국어영역에서 학습되던 기존의 방법들과는 다른 시도이다. 한 텍스트 안에서 국어와 사회와 도덕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텍스트 속의 문제가 단순한 교과서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 시대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그러한 학습들의 누적된 결과는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미건조하게 여겨졌던 지식들의 결정체는 결국은 우리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어 더 생동감 있고 적극적인 학습자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교과서 외에 다양한 독서를 통한 통합교과 학습은 기본적인 교육 목표를 이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교과와 연계된 통합교과 독서지도는 독서를 통해서 한 과목의 기본 원리나 개념을 숙지하는 것을 넘어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이경희[27]는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서의 난이도를 분석했는데 외어야 할 사실들의 양, 문장의 난이도, 앞뒤 시대와 관련된 유기적인 서술 등의 면에서 실험 대상이었던 학생들의 과반수가 이해하며 공부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교과서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교과서와 관련된 다양한 독서 자료의 필요성을, 그리고 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이해를 구하는 것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와 연계된 독서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과서와 관련된 폭넓은 독서를 하게 되면 학습자는 교과서에 집중적으로 제시된 어려운 어휘나 개념에 대해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교과서를 넘어서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28] 또한 내용교과의 학습을 위해서도 다양한 독서가 유용하게 작용한다.

교과와 연계된 독서 자료는 한 텍스트 속에서 서로 다른 교과목의 연계를 가능케 한다.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넓혀주어 교과서의 이해를 돕고, 교과서 중심의 학습 내용을 심화시켜 생활 속에서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서를 교과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학습내용을 보충하고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독서의 사고 전략, 즉 깊이 있는 독해와 비판적, 창의적 사고 기능의 계발은 교과와 연계된

27) 이경희, 「중학교 사회 2 교과서의 난이도 분석」,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48~50쪽.

28) 박미정, 앞의 논문, 12쪽.

통합교과적 학습이 될 때 그 효과가 더 상승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과학습이 재미있고, 독서가 적절한 도움을 주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모든 교과의 학습에서 유의미한 지식의 습득과 독서의 사고 학습 전략의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 2.2. 문학 텍스트 독서지도

문학읽기는 궁극적으로 문화적 실천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해 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학은 그 시대의 사회적 모습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사료에 의존해야 하는 역사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의 형태들을 통해서 당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문학작품을 읽으면 우선 느끼고, 자기의 경험과 주관을 대입해 보고, 객관화하여 설명해 보거나 평가해서 그 세계를 자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

문학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삶의 다양성이다. 즉 인간의 삶과 정서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구체적 형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곧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감상 능력은 삶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이 삶의 진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작가가 체험한 삶의 진실과 가치가 녹아있다고 할 때, 문학읽기는 작품 속의 삶의 가치와 진실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인식하고 삶의 지표를 새로이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것이 삶의 참이고, 바람직한 것이며,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인간의 정신이 갖추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문학읽기야말로 그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데 본질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문학읽기는 학생들에게 공통의 문학적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문학을 통한 독서지도를 할 경우 교육적으로 좋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을 비롯하여 국어교과와 관련해서는 인물과 배경, 시점 등을 가르치기에 용이하고 토론하기에 좋은 작품을 선정한다. 토론거리가 있다는 것은 사회나 삶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도 된다. 필독도서가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배제하고 선정될 경우 책읽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국어과목 속에 일부분이 지문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선정한다든가, 잘 알려진 한국 문학이나 스테디셀러로 알려진 외국의 명작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화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교과와 관련되어 있으면 책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읽기는 무엇보다도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등장인물의 유형이나 장르, 취미, 우정과 사랑 등 다양하다. 문학읽기를 통한 독서지도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을 통합하여 지도하기에 좋으며, 무엇보다도 사회, 과학, 역사나 도덕 등 다른 교과와 통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중학교 시절에 해당하는 14~16세는 문학기[29]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서

29) 독서흥미의 발달을 성장 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별해 보면 학자에 따라 다소 견해차가 있으나, 대체로 옛날이야기기(4~6세), 우화기(6~8세), 동화기(8~10세), 이야기기(10~12세), 전기기(12~14세), 문학기(14~ ), 사색기(17~ )의 7단계로 나눈다.(손정표, 앞의 책, 78쪽.)

에 있어서도 스릴이나 액션 같은 화려한 행동이 드러나는 작품보다는 내면생활의 저항을 그린 문학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자아에 대한 긍정과 외부의 압력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려 하지만 성인층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독서활동을 통한 자기노출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 내면의 갈등을 다룬 시, 소설, 희곡 등 고전 명작들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문학읽기를 통한 독서지도는 무엇보다도 독자로 하여금 읽기의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작품을 분석하는 지식교육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문학이 주는 감동보다는 인물, 배경, 사건에 얽힌 줄거리와 문법적 요소에 치우쳐 그 감동을 맛보지 못한다. 그 결과 단편 소설이나 시 한 편을 읽는 데도 감상은 그저 머릿속의 공상에 불과하고 숨어있는 의미를 찾기에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학생들에게 시는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시험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교육에서 문학읽기를 통한 독서행위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음에도 읽기과정을 도외시하고 문학지식의 주입에 비중을 두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의 목표를 실천하는 측면에서도 읽기의 흥미와 문학적 요소들을 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한국문학작품들의 경우 1920~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작품 속에서는 현실과 너무나 다른 사회적 상황들, 궁핍한 경제,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학생들 입장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러한 문학 작품 속 현실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문학작품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러면서도 재미없는 이야기로 인식된다. 그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독서를 기피하게 되고, 흥미와 재미를 선사하는 판타지나 인터넷 소설 속으로 파고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작품들은 엄선된 작품들이며 정서적으로 문학적으로 청소년에게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좋은 작품들이다. 단순히 현실과 동떨어진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아픔과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작품을 읽었을 경우 많은 감동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문학읽기는 독서 전 그 시대의 역사적 진실을 엿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들이 등장인물간의 갈등과 사건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독서지도를 함에 있어서 문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문학적 성과를 맛볼 수 있는 차원에서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2.3. 비문학 텍스트 독서지도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서 자료는 아무래도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는 단행본 자료들이다. 학생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독서 자료에 접근한다. 친구, 교사나 학부모 등의 권유에 따라 혹은 매스컴의 광고를 보고, 때론 스스로 선택해서 독서 자료를 찾는다. 이러한 독서 자료 중에는 상당수 비문학 자료가 있으며, 그 내용도 교과와 연관된 것들이 많다. 이처럼 학생들이 읽고 있거나 읽어야 할 책 중에는 비문학도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각종 매체가 발달하여 정보의 교류가 쉬워진 현 상황에서 비문학도서를 통한 심화된 정보의 획득은 중요하다.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이

나 이론들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문학읽기는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보여주는 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데 따른 책 선정의 어려움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영역의 광고에 의존하거나,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을 중심으로 독서를 하는 경우도 그러한 이유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시대를 다룬 책이더라도 집필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쓰여진다는 점도 도서선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세계 여러 현상들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도 그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좋은 책을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비문학도서의 경우, 자칫 지루하고 딱딱한 읽기가 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과목이나 과학 등에 대하여 온통 외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적절한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교과와 연계된 책이 선정되어 통합적으로 읽혀졌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매개체로 탈바꿈한다. 이는 비문학도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움을 줄 수 있음을 뜻한다. 문학적인 글들이 내면의 탐구와 연결되어 있다면 비문학읽기를 통해서는 보다 현실에 가까워지고 삶의 현상들을 적극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문학읽기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교과서의 내용들이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읽히기 쉽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과연계를 통한 비문학읽기는 사건이나 현상들의 연결고리를 통해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관심을 유도한다. 특히 그것은 역사적 사건들의 개연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안목을 키워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비문학읽기를 통한 독서지도는 교과서의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관심 있는 영역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다양한 장르의 독서를 통해 개인의 지적 수준과 독서력의 질적 향상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Ⅲ. 통합교과 독서지도 사례 연구의 실제

통합적 접근에서의 '통합'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통합적 언어활동에서의 통합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내용 영역 간 통합이다.[30] 여기서 언어활동에서의 통합은 말하기·읽기·쓰기·듣기 등을 통합하여 활동하는 것을, 내용 영역 간 통합은 범교과적 통합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영역 간의 경계 없이 접근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범교과적 통합, 즉 통합교과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어·사회·과학·역사·예술 등 교과교육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활동이다. 이러한 독서활동을 통해서 독자들은 교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장르와 분야를 넘어선 다차원적이고 다각적인 의미를 재구성해 나갈 수 있다.

통합교과 독서지도를 함에 있어 연구자는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도서를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학년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고, 교과목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제별, 내용별로 교과목의 단원을 명시하며, 한 달에 두 권의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제나 제재의 연관성에 비중을 두기로 한다. 책을 읽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읽기 전 활동을 통해서 책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한다. 독서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독서지도 모형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문학 텍스트 독서지도

### 1.1. 고전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우리가 고전문학 작품을 읽는 목적은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정서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아는 데 있다. 따라서 그 작품을 쓰고 즐기던 삶과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31] 고전문학 작품에는 우리민족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소망과 한 등이 드러나 있으며, 우리 조상의 깊은 생각과 높은 기상, 그리고 꿋꿋한 정신 등이 녹아 있다. 작품을 읽다보면 민족의 정신을 알게 되고, 깊이 있는 사유의 흔적을 좇다보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고전문학 속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당시 시대적 상황과 인과관계 등을 통해서 현실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1.1.1. 도서선정의 의의

30) 신운선, 「발달적 독서지도를 통한 독서수업 연구」, 경기대 국제문화대학원 석사논문, 2004, 27쪽.

31)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어 2-1』, 교육인적자원부, 2007, 97쪽.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의 하나가 박지원의 소설이다. 무엇보다도 박지원의 소설은 당시 사회에 대한 그의 생각과 사상을 잘 드러낸다. 박지원의 작품을 통해서 독자는 18세기 후반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과 문제를 읽어낼 수 있다. 박지원의 사상은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훌륭하게 형상화되고 있고 사회개혁을 위한 선각자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청소년을 위한 박지원 소설집』[32]을 선정하여 읽게 한 이유이다. 독서지도 시에는 소설집에 나오는 10편 중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 3편을 중심으로 독후활동이 진행된다.

연암 박지원의 말을 빌리면, 고문이란 옛적에 있어서의 일상적 언어를 기록한 것으로서 참다운 문학의 길은 옛말과 경험을 답습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진정한 의미를 음미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경험을 살리는 데 있다. 시대적 변화를 전제로 현실을 중시했던 문학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사상과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적 간극으로 인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고전문학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문학적 경향을 답습하고 난 후에 읽으면 용이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 1.1.2. 독서지도 사례

고전문학은 무엇보다도 읽기 전 활동을 통해 책을 흥미 있게 읽기 위한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책에 대한 흥미가 없을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어려운 어휘사용은 독해의 부담을 유발한다. 또한 등장인물의 갈등도 현실적 문제로 접근했을 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힘든 부분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서 전 작가의 사상과 창작 동기, 시대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독후활동으로는 문학작품 속에 드러난 작가의식과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었는지를 읽어내는 활동을 통해 고전문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8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고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 지식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학문적 성향이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전제로 조선시대 학자들의 학문적 선택과 실학이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활동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조선시대 학자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조선후기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32) 박지원, 『청소년을 위한 연암 박지원 소설집』, 이가원・허경진 옮김, 서해문집, 2006.

**<자료1> 통합교과 지도안**

| 중학교 국어 2-1 |
| --- |
|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

| 중학교 사회 3 | 중학교 국사 |
| --- | --- |
| Ⅲ. 시장 경제의 이해 | Ⅵ. 조선 사회의 변동 |

| 독서 전 활동 | 독서 후 활동 | |
| --- | --- | --- |
| 18세기 후반 조선의 사회적 상황과 실학에 대해서 알기 |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 (소설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 심화학습 (풍자만화 그리기) |

↕

- 고전읽기를 통한 독서 전·후 활동은 독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장치로 유용하다.
- 텍스트 속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독해력을 증진시킨다.
- 심화학습으로 현실의 문제를 풍자함으로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표1> 독서지도 계획안(고전문학)**

| | | | |
|---|---|---|---|
| **도 서 명** | 청소년을 위한 연암 박지원 소설집 | **지은이** | 박지원(이가원·허경진 옮김) |
| **지도일시** | 2007년 3월 24일 | **장 소** | 000독서문화원 |
| **활동목표** | • 작품 속 이야기 내용을 파악한다.<br>• 작품의 주제를 통해 조선후기 사회를 알 수 있다.<br>• 현실의 부조리를 풍자할 수 있다. | **차 시** | 1/1 120분 |
| | | **지도대상** | 중 2 |
| **활동단계** | **교수—학습 활동** | **시 간** | **유의점/자료** |
| **생각열기** | •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br>• 18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알아본다.<br>• 실학파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들의 주장을 이해한다. | 20분 | 국사 영역 |
| **본 활동** | **활동 1.「양반전」**<br>• 내용 이해하기<br>-양반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br>-양반의 사정을 안 군수의 행동은 어떠했나?<br>-부자가 양반을 부러워하지 않은 까닭은?<br>• 작가의 의도 파악<br>-작가가 양반의 신분을 파는 설정을 한 까닭은?<br>-작품 속 군수의 역할과 그의 인물됨 평가.<br>-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의 모습을 추측해 보자.<br>-작가가 풍자하고자 하는 것과 현실에서 작품 속 양반 같은 인물 찾아보기.<br>**활동 2.「허생」**<br>• 내용 파악하기<br>-허생이 책읽기를 포기한 이유.<br>-허생이 집에서 나와서 한 일.<br>-어영대장 이완이 허생을 찾아가게 된 까닭은?<br>-그들의 대화 내용과 그 결과는?<br>• 작가의 의도파악<br>-허생의 아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 20분<br><br>20분 | 국어 영역<br>·<br>사회 영역 |

| | | | |
|---|---|---|---|
| | -매점매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br>-허생이 무인도를 나오면서 한 행동과 그 이유는?<br>**활동 3.「호질」**<br>•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br>-작가가 풍자한 것들을 찾아보고 어떤 모습을 풍자했는지 알아보자.<br>-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등장인물과 왜 그런 대변자를 활용했는가를 생각해보자.<br>-우리사회에서 북곽 선생의 모습을 찾아보자. | 20분 | |
| **마무리** | • 현실에서 작품 속 인물의 모습들을 찾아보자.<br>• 허생이 사용한 매점매석의 방법을 비판해보자.<br>•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일이나 부도덕한 사람을 정해 풍자하는 내용의 만화 그리기. | 25분 | 미술 영역 |
| **다음 차시 예고** | • 다음 필독서『노트르담의 꼽추』를 읽기 위한 동기유발<br>-원제목『파리의 노트르담(Notre Dame de paris)』에서 노트르담의 뜻은 무엇인가?<br>-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노트르담 성당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짐작해보자.<br>-14~16세기 유럽의 사회적 상황 이해하기 | 15분 | 사회 영역 |

**① 독서 전 지도**

연암 박지원 소설의 배경이 된 조선 후기 사회상을 보여주는 학습이 선행되었다. 18세기 후반의 조선 사회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였다. 정치적으로는 당쟁이 극심했고, 경제적으로는 화폐의 유통, 수공업의 발달, 농업 생산력의 향상에 의해 부의 축적과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신분계층이 등장하는 등 사회 변동이 심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조선 봉건사회를 굳건하게 지탱해 왔던 신분제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조선 봉건사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일부 선구적 지식인들에 의해 조선사회를 지배해 온 성리학의 비현실성이 극복되고, 현실문제에 눈을 돌린 실학이 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다. 실학자들 중에는 농업을 중시하고 토지 제도

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농학파와, 상공업 활동을 중시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상학파(북학파)가 있었다. 연암 박지원은 북학파의 선구자로 상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는 작품 속에서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과 함께, 허생처럼 상업 활동을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작품 속에서 읽어낼 수 있도록 독서 전 선행학습을 통해 작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②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

**<자료2> 등장인물 비교**

| 제목 | 양반전 | 허생전 | 호질 |
|---|---|---|---|
| 등장 인물 | 양반, 부자, 군수 | 허생, 아내, 부자변씨 | 범, 북곽선생, 동리자 |
| 줄거리 요약 | 강원도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군에다 해마다 곡식을 빌려서 갚지 못했는데 한부자가 돈을 대신 갚고 양반을 샀다. 그런데 부자가 양반문서를 갖고 보니 지켜야 할것이 너무 많았다. 부자는결국 양반의 작태를 알고는 포기하고 만다. | 허생이라는 선비는 늘 글만 읽어 집이 가난했다. 하루는 아내가 굶어죽는 글은 그만 읽고, 돈을 벌어오라고 한다. 허생은 부자 변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고 매점 매석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번다. 그리고 나라안에 시끄러운 도적떼를 거느리고 무인도에 들어가 살다가 글읽는 사람만 데리고 나와버린다. | 학식 있고 명성 높은 선비 북곽선생이 절개가 굳기로 소문난 동리자를 찾아갔다가 다섯 아이들에게 들켜 도망오다가 똥구덩이에 빠진다. 마침 지나가던 범이 잡아먹으려고 하니, 구차하고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한다. 농부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유를 물자 또다시 북곽선생은 자신을 변명한다. |
| 작가의 의도 | 양반들의 무능과 위선적인 생활모습과, 허위 허식을 풍자하고 있다. | 조선의 취약한 경제구조와 유통구조 때문에 생기는 경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실학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 범의 입을 빌어 양반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부도덕성을 폭로, 비판하고 있다. |
| 작품 속에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 | 조선 후기에는 부를 축적한 평민들이 있었고, 양반들은 일하지 않고 나라의 축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돈으로 신분을 사고팔 수 있었다. | 한 나라가 매점 매석으로 해서 경제가 흔들릴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활발하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 양반들은 체면만 내세우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

○○중학교 김○○

### ③ 심화활동(풍자만화 그리기)

연암 박지원이 소설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모습을 풍자한 것처럼, 현대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일이나, 부도덕한 사람을 풍자하는 내용을 만화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 진행됐다.

**<자료3> 풍자만화 그리기**

○○여중 이○○

○○중학교 정○○

### 1.1.3. 평가하기

고전문학은 학생들에게 읽기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책을 받아드는 순간 학생들은 재미없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책의 쪽수를 확인했다. 일단 읽기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양이라도 적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행동이다. 문장에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고 낯선 어휘들이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의 구체적 원인이 된다. 내용면에서도 화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독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재미없는 읽기가 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어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서, 18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런 후에 책을 읽어오도록 했더니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독서 전 지도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후활동으로 3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모두가 비교적 잘 정리했다. 또한 그들은 3편의 작품에서 조선 후기 양반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중에는 어느 시대이건 관리들의 문제가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한다면서 현실의 문제를 꼬집는 사례도 있었다. 마무리 활동으로 풍자만화 그리기에서 학생들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사례로 정치인, 기업인, 부도덕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풍자하는 만화를 그렸다. 그들은 그림이 서툴렀지만 내용면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는 동기유발을 통한 읽기가 독해력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 1.2. 외국문학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 1.2.1. 도서선정의 의의

『노트르담의 꼽추(Notre dame de paris)』[33]는 1831년에 발표되어 사랑과 정열, 질투 등의 생생한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묘사한 낭만주의의 대표작이자 백미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15세기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성직자, 종지기, 장교, 무희 등 여러 계급의 인물이 지닌 생활, 미신, 도덕 등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가치관 등을 잘 보여준다.

저자 빅토르 위고는 실제 인물의 이름 가운데서 작중 인물명을 선택했고 부주교 역시 노트르담 성당의 첫 보좌 신부이며 왕비의 고해 담당 신부를 모델로 했다고 한다. 그 인물은 실제로 신비 사상에 젖어 책을 출간했고 거기에 담긴 대담한 주장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야 했다.

14~16세기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화가 부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예술·사상 등에서 새로운 문화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을 가리켜 르네상스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봉건제와 교회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르네상스는 사회와 종교의 부패를 비판하는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은 자신의 살고 있는 세계와 자연이었다. 그 결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탐구하는 근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여 중세의 우주관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구텐베르크는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여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34]

---

33) 빅토르 위고, 『노트르담의 꼽추』, 전혜경 옮김, 혜원, 2005.

한편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욕구 충족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이 사회 규범과 어긋나지나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욕구 충족이 사회 규범과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경우에 우리는 도덕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덕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도덕적 갈등을 겪는다고 말한다.[35]

이와 같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교과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배경 지식과 활동 목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넓게 보면, 이것은 학생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종교와 서구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동시에, 시대를 넘는 고전 문학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쌓는 계기가 된다.

### 1.2.2. 독서지도 사례

독서지도를 하는 데에는 외국문학의 경우 사회와 역사적 환경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 전 활동으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먼저 알게 함으로써 책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6세기 유럽의 상황을 중심으로 역사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 선행되었다.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책을 읽게 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읽고 난 후의 느낌과 생각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독후활동으로는 중학생 교육과정의 국어, 사회, 도덕 등과 연계하여 통합교과 독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독해를 돕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통해 소설의 기본이 되는 인물, 배경, 사건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역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럽에서 교황의 권위가 강조되었던 시대에 작품 속에 드러나는 사건과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은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 초래하는 결과를 역사적 현실과 현대사회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진행되었다.

---

34) 차경수 외, 『중학교 사회 2』, 교학사, 2007, 39~40쪽.

35)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도덕 3』, 교육인적자원부, 2007, 68쪽.

**<자료4> 통합교과 지도안**

| 중학교 국어 2-1 |
| --- |
| 단원 2)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

| 중학교 사회 2 | 중학교 도덕 3 |
| --- | --- |
| Ⅳ. 개인과 사회의 발전<br>2.서양 근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 | Ⅰ. 개인의 가치와 도덕 문제 |

| 독서 전 활동 | 독서 후 활동 | |
| --- | --- | --- |
| 14~16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황 이해하기 |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br>(마인드맵) | <독서토의><br>'현대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

↕

- 14~16세기 유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 마인드맵을 통한 내용 이해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의 전개를 그림을 통해 요약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

**<표2> 독서지도 계획안(외국문학)**

| 도서명 | 노트르담의 꼽추 | 지은이 | 빅토르 위고 |
|---|---|---|---|
| 지도일시 | 2007년 4월 14일 | 장 소 | 000독서문화원 |
| 활동목표 | 1. 작품의 시대배경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br>2. 등장인물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관계를 통해 인간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br>3. 숙명적인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 차 시 | 1/1 120분 |
| | | 지 도 대 상 | 중학교 2학년 |
| 활동단계 | 교수—학습 활동 | 시 간 | 유의점/자료 |
| 생각열기 |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br>•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노트르담 성당'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본다.<br>• 14~16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황을 확인한다. | 15분 | 사회 영역 |
| 본 활동 | **활동 1. 어떤 이야기일까?**<br>• 전체적인 이야기의 내용 파악하기<br>-마인드맵을 통해 소설의 인물, 배경, 사건 등을 알아보기<br>• 15세기 보헤미안의 삶에 대해 생각해본다.<br>**활동 2. 15세기말 프랑스 파리**<br>• 당시 사람들의 외침(타도하자! 권력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신학자들과 교회법 제정자들을…)을 통해 왜 이런 외침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본다.<br>• 클로드가 연금술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br>• 클로드가 인쇄기의 발명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통해 인쇄기 발명의 의미를 알아본다.<br>• 에스메랄다를 처형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그런 판결이 나게 된 과정을 생각해본다.<br>• 위 활동을 통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아본다.<br>**활동 3. 숙명(ANATKH)**<br>• 숙명(宿命, fate)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작품 속에서 숙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본다.<br>• 작품 속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느꼈을 숙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br>• 숙명이란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 20분<br><br>15분<br><br>10분 | 국어 영역<br>·<br>도덕 영역 |

| | | | |
|---|---|---|---|
| | 각자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br>**활동 4. 사회적 불평등**<br>• 카지모도는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 말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서술해보자.<br>• 현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토의해보자. | 25분 | |
| **마무리** | •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 속에 나오는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감상문을 써보자. | 20분 | 국어 영역 |
| **다음 차시 예고** | • 다음 필독서『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에 대한 동기유발하기<br>-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br>-대부분 기록에 의존한 역사적 사실들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여도 되는가?<br>-그림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br>-그림 속에 드러나는 사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하며 책 읽어오기 | 15분 | 역사 영역 |

**① 독서 전 지도**

책을 읽기 전에 적절한 도서를 선정하고 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읽고 싶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글이라도 독자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에만 좋은 책으로서의 가치가 살아난다. 따라서 독서 전 지도는 읽으려고 하는 책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배경지식을 적절하게 꺼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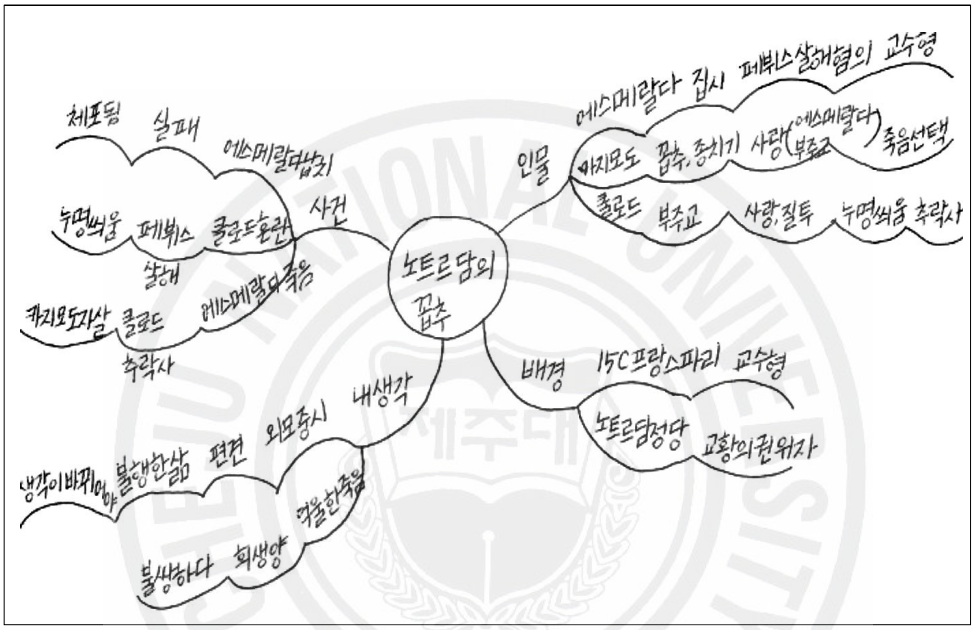
빅토르 위고의『노트르담의 꼽추』는 15세기 프랑스를 무대로 쓰여진 작품이고, 외국이라는 낯선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고 읽게 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문학 작품인 경우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을 알고 독서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현저하게 독해력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작품의 경우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16세기 유럽을 학습하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그 경우 책을 읽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인과관계가 긴밀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노트르담의 유래와 저자의 집필 의도를 파악하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저자가 노트르담 성당을 오르는 과정에서 계단에 쓰인 글자 '숙명(ANATKH)'을 보게 되는 순간 상상력의 세계로 빠져들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혔듯이, 저자의 집필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주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②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마인드맵)

소설의 구성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한다.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은 학생들에게,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책 속의 내용을 좀더 쉽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자료5> 마인드맵**




○○여중 문○○

### ③ 심화 학습(독서토의)

독서를 한 후 주제나 중심내용을 연관시켜서 하는 독서 토의 활동은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토의 활동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객관적이고 확장된 시각을 갖도록 유도한다.

먼저 토의를 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람직한 토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토의에 익숙해지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첫째, 바른 태도로 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행과 무관한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표자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셋째,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말해야 한다.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귀기울여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토의는 찬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토론과 달리 주제에 대한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진행과 조정이 필요하다.

**<자료6> 독서토의**

---

『노트르담의 꼽추』(빅토르 위고 글, 전혜경 옮김, 혜원 펴냄)를 읽고

**주　　제 :** '현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참 가 자 :** 사회자(교사) 외 6명(수연, 지향, 승아, 미혜, 푸름, 슬기 -모두 중2)

**토론일자 :** 2007년 4월 14일(토요일)

---

**사회자 :** 지금부터 『노트르담의 꼽추』에 대한 독서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의를 진행함에 있어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앞서 얘기했던 토의 자세를 숙지하고, 토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카지모도의 슬픈 사랑이야기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15세기 말의 파리를 재현한 역사소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비극적 운명을 단지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카지모도가 에스메랄다에게 친구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는 장면에서 당시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카지모도나 에스메랄다를 통해서 그들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은 어떤 것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제인 '현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지모도나 에스메랄다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　향 :** 카지모도는 흉측한 외모로 인한 신체적 결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악마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카지모도에게 외모 때문에 겪게 되는 불평등은 그로서는 부당한 것입니다.

**승　아 :** 에스메랄다 또한 집시라는 자신의 위치와 여자라는 것 때문에 당시 사회적인 희생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유럽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나라에 위기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마녀사냥'이라는 악습이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에스메랄다 또한 그들의 각본대로 움직이게 된 피해자입니다.

**사회자 :** 카지모도와 에스메랄다가 겪었던 사회적 불평등의 예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사회에서 그들처럼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경우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수　연 :** 우리사회에서는 학력이나 성별, 경제적 능력이나 신체적 조건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품이나 개인적 소질은 따지지 않고 취직이 된다거나,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푸 름 :** 맞아요. 그런가 하면 사회에서 장애를 문제 삼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는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슬 기 :** 요즘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직장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봐야 하고, 가사노동의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해요.

**미 혜 :** 저희 어머니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집안일을 많이 힘들어하세요. 집에 오면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지겹다고 하실 때도 있어요. 직장생활을 어렵게 시작해서 이제 겨우 안정됐는데, 가정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좋게 작용할까봐, 직장에서는 티도 못 낸대요.

**지 향 :** 요즘은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힘들어요. 학교공부만으로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고액과외 하는 애들을 따라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수 연 :** 그래도 공부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봐요. 요즘은 교육방송이나 별로 비싸지 않은 인터넷 강의도 잘 이용만 하면 얼마든지 실력을 쌓을 수 있거든요. 공부는 학원이나 과외도 좋지만,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애들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 그럼 학력이나 그밖의 외부조건들도 공부처럼 자신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슬 기 :** 요즘 사람들은 명문고에 들어가야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죠. 그만큼 지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은 꿈같은 얘기가 되어 버렸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가는 건 못 가는 거예요.

**수 연 :** 물론 동등하다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실력은 인정받지 않을까요? '난 학력이 낮으니까' 하고 포기하거나,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은 여성 엔지니어들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지 향 :**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드물고 그 위치에 오기까지는 남들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힘들게 노력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그들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배려한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 :** 네, 화제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군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불평등의 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가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차별화된 기회의 균등이 주어지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지 향 :** 먼저,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조건에서 똑같이 주어지는 평등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당제를 준다든가, 공교육만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기회도 비슷하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승 아 :** 사람들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다르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위주

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따라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려면 사회적인 여러 구조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바꾸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미 혜 :** 이런 문제들이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책임이 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함께 노력하고 바꿔나가야 할 것 같네요. 모순된 구조들을 바꾸어나가고 개인도 거기에 맞춰 노력해 나간다면 사회적 불평등이 많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모두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처럼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노력하고 바꾸어 나간다면 카지모도나 에스메랄다처럼 외모와 신분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겠네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 자신부터 고치고 바꾸어 나간다면 좋은 환경이 좀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부터 긍정적으로 바꾸어나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④ 독서감상문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감상문 쓰기

**<자료7> 독서감상문**

####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여중 문○○

『노트르담의 꼽추』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소설로 인정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사랑과 질투 등 인간의 생생한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묘사한 낭만주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인물들 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상기시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카지모도는 꼽추로 태어나 버려지고, 부주교인 클로드의 손에서 길러져 그의 양아들로 살아가지만 그가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다. 인정에 메말라 있던 그는 클로드의 명령으로 에스메랄다를 납치하려다 붙잡히게 된다. 고문을 받던 중, 목이 말라 물 한 모금을 구걸했지만 그에게 호의적으로 물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 물을 건네는 에스메랄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사랑이 아닌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느냐는 카지모도에게 그녀는 그럴 수 없음을 시인한다.

카지모도가 꼽추로 태어난 것과 에스메랄다를 사랑하게 된 것, 모두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카지모도의 선택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을 받는다. 그리고 끝내는 스스로 비극적인 삶의 선택을 한다.

우리사회에는 이처럼 자신의 외부적 환경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론 경제적 빈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작은 일들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삶의 희망을 꺾어버린다. 사회적 약자들이

겪게 되는 이런 다양한 불평등은 몇 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조금만 모습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들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카지모도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시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사회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카지모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 나름의 어쩔 수 없는 불평등을 겪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겼다. 더 이상 『노트르담의 꼽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처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

### 1.2.3. 평가하기

14~16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이루어진 독서는 학생들에게 소설에 흥미를 갖게 했다. 거기에는 내용면에서 이야기의 전개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책이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읽어보니 재미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에스메랄다와 카지모도가 너무 불쌍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개인적인 잘못보다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삶을 산 것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다.

마인드맵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에는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심화학습으로 '현대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독서토의가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막연해서 대답을 어려워했지만 나중에는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예로 들며 현실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텍스트 속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니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 시대에 유럽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토의가 끝나고 나서 책이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반응으로 볼 때 독후활동이 독해력을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 2. 비문학 텍스트 독서지도

비문학도서의 글은 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사회, 과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쓰여진 글이다. 그것은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읽는 대상을 고려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나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그런 이유로 독자를 고려하여 나이와 학년에 맞게 쓰여지고 해설을 덧붙여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비문학 텍스트가 관심영역에 따라 흥미로운 책일 수도, 딱딱하거나 재미없는 책일 수도 있다. 특히 예술영역의 텍스트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난해하고 흥미를 끌지 못하는 분야의 내용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읽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누어 읽기 방식을 택하는 것도 좋다. 나누어 읽기는 학생들에게 읽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텍스트 속에 있는 여

러 가지 그림이나 도표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고, 동기를 유발한 후 읽기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 2.1. 과학도서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 2.1.1. 도서선정의 의의

학생들은 이미 공개된 지식, 보편화된 지식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도서의 경우, 과학의 유용성을 생각하여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보다는 사회와 연계된 과학, 생활과 연결된 과학을 경험하고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케임브리지 과학사 1-생물·의학 이야기』[36]는 저자가 젊은 시절 케임브리지에서 과학 교사로 일하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사를 집필하기로 마음먹고, 40년간의 조사와 연구 과정을 거쳐 완성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류 과학의 발달사와 재미있는 과학 세계를 소개한다. 그는 신기한 사건과 우연한 발견이 어떠한 발전을 거듭하였고, 과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 끝에 현재의 과학과 기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 책은 과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화나 유명한 말을 설명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그 당시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 정확한 진상은 무엇인지, 만약 허황되게 와전된 것이라면 그 경위는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학생들은 이렇게 과학 교과서의 딱딱한 이론을 배우기 전에 과학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읽음으로써 과학 교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교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측면에서 동기유발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필독서로 선정하게 되었다.

### 2.1.2. 독서지도 사례

과학도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성향에 따라서 흥미 있게 읽기도 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읽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독서 전 지도를 통해 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흥미를 갖게 되면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학적 현상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책읽기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책을 읽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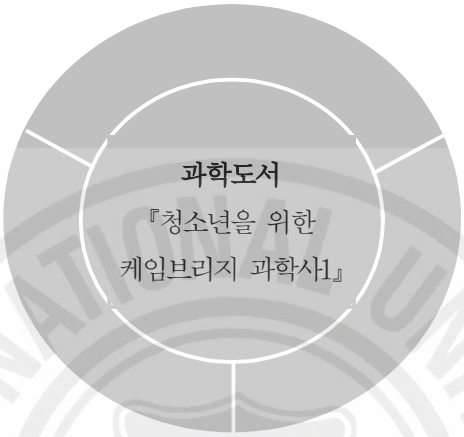
독후활동은 책에 대한 내용 확인과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이후 의학과 생물학에서 이전과 달라진 새로운 발견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숨은 노력과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현대 과학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과 현실의 문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마무리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우리 삶과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갖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들을 통해서 과학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나갈 수 있다.

---

36) 아서 셧클리프 외, 『청소년을 위한 케임브리지 과학사 1-생물·의학 이야기』, 조경철 옮김, 서해문집, 2006.

**<자료8> 통합교과 지도안**

| 중학교 과학 2·3 |
|---|
| 5-2. 자극의 전달과 신경계<br>8-1. 유전의 기본 원리 |




| 중학교 사회 2 |
|---|
| V.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

| 중학교 도덕 3 |
|---|
| Ⅰ. 사회생활과 도덕 |

| 독서 전 활동 | 독서 후 활동 | |
|---|---|---|
| 신문기사를 통해 책에 대한 동기유발 | 내용 확인 및 이해를 위한 활동 | 토론 후 자신의 입장이 드러나는 글쓰기 |

↕

-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게 한다.
- 내용 이해를 위해서 텍스트 속의 과학적 사실과 현상들을 찾고 정리해볼 수 있게 한다.
- 심화활동으로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과학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표3> 독서지도 계획안(과학도서)**

| 도서명 | 청소년을 위한 케임브리지 과학사 1<br>-생물·의학 이야기 | 지은이 | 아서 셧클리프 외 지음, 조경철 옮김 |
|---|---|---|---|
| 지도일시 | 2007년 3월 10일 | 장 소 | 000독서문화원 |
| 활동목표 | 1. 생물·의학적 발견과 그 배경을 안다.<br>2. 과학 발달의 원인을 알 수 있다.<br>3. 과학 발달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지도 대상 | 중 2 |
| | | 차 시 | 1/1 120분 |
| 활동단계 | 교수—학습 활동 | 시 간 | 유의점/자료 |
| 생각열기 |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br>• 책을 읽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해본다.<br>• 의학의 발달로 달라진 삶의 모습들을 찾아본다. | 10분 | 과학 영역 |
| 본 활동 | **활동 1. 새로운 발견**<br>• 마취제의 발달 과정을 정리해 보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말해보자.<br>• 제너의 종두 실험 과정을 정리해보고, 그 실험 방법을 비판해보자.<br>• 파스퇴르의 백신 증명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자.<br>•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와 저자가 페니실린의 발견을 '우연한 발견'이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 발전의 우연성에 대해 생각해보자.<br>• 린네가 과학사에서 세운 업적과 그 업적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공개된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해보자.<br>• 워드의 식물상자의 원리는 무엇이며, 식물 종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br>• 윌리스와 다윈이 진화에 대한 공동 논문을 발표한 까닭을 설명해 보고, 서로에게 취한 태도에 대해서 말해보자.<br>**활동 2. 현대 과학이 당면한 이슈**<br>**-항생제**<br>• 항생제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혜택과 그로 인 | 35분<br><br>30분 | 과학 영역<br>·<br>도덕 영역 |

| | | | |
|---|---|---|---|
| | 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자.<br>•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되는 항생제의 경우를 설명하고 내성에 대해서 말해보자.<br>**-장기 이식**<br>• 장기 이식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내 입장을 말해보자.<br>• 동물 장기 이식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 | 사회 영역 |
| **마무리** | •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토론 후 입장이 드러나는 글쓰기<br>• 조지 밀러 감독의 "로렌조 오일(Lorenzo's Oil, 1992)에 대한 소개 | 35분 | 국어 영역 |
| **다음 차시 예고** | • 『청소년을 위한 연암 박지원 소설집』에 대한 동기유발<br>-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보자.<br>-작가의 의식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기 위해 작가의 성향 파악하기.<br>-18C 후반 조선사회와 실학에 대해서 말해보자.<br>-박지원의 사상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읽어오기. | 10분 | 국어 영역 |

**① 독서 전 지도**

과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통해 독서에 대한 동기를 유발했다. 신문기사[37]의 내용은 '동물이 겨울잠을 잔다면 사람도 겨울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고 발명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오늘날의 과학발전의 성과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된다.

동면 동물은 추위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잠을 잔다. 또한 동면 과정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는 이유는 잠을 자는 동안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꿔 주는 갈색

37) 제시된 신문 기사는 '사람도 겨울잠을 잔다'는 제목으로 《한겨레》 2006년 12월 20일자에 실린 내용으로 일본 고베시 롯코산에서 2006년 10월 조난당한 뒤 24일 만에 구조된 한 지방 공무원의 생존 비밀에 대한 이야기다. 의료진은 그의 생존 이유를 '극단적 저체온으로 인한 동면 상태'에서 찾았다.

지방 세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동면 동물은 동면 전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서 지방으로 저장한 뒤 분해해서 사용한다. 반면, 사람은 난방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고, 겨우내 음식도 충분해 겨울잠이 필요 없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신문기사와 연결시켜 지도할 경우 학생들에게 충분한 과학적 흥미를 제공한다.

우리가 알게 된 과학적 사실에는 우연한 발견도 있고 준비된 노력에 따른 결과인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그러했는지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과학도서를 읽기 전에 지적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내용 확인 및 이해를 위한 활동

**<자료9>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

**새로운 발견**

**▷ 마취제 발달 과정**

**험프리 데이비** :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발견 (주로 파티에 사용)

**호레이스 웰스, 모턴** : 무통발치법 (에테르를 사용해 1844년 통증없이 이를 뽑는데 성공)

**심프슨** : 클로르포름을 사용해 무통 분만법 탄생시킴.

**▷ 제너의 종두 실험 과정**

우두고름을 상처에 묻힌다 → 우두에 걸리나 곧 회복된다 → 천연두 고름을 상처에묻힌다 →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 우두를 통해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 키움 )

**▷ 파스퇴르의 백신 증명**

미생물의 발효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60마리의 면양을 가지고 탄저병 백신을 공개 실험후 인정받음

**▷ 플레밍의 페니실린**

병원균의 성장을 저지할수 있는 물질로 디프테리아, 폐렴, 패혈증, 인후염등 병과 상처나 악성종기,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혈관에 주사하면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다. 그후 의사들은 수술시 감염이나 화농을 막기위해 환자에게 투여하여 세균의 성장과 번식을 막았다.

**▷ 린네의 업적**

이미있어온 시스템을 철저하게 개량하여 식물의 계통적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개척자로 평가받음. 꽃의 수술이나 암술등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유럽 식물학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사용하게 된다.

**▷ 워드의 식물 상자**

높이 3cm 가량의 질그릇화분에 잔돌을 깔고 토탄이나 적토를 부드럽게 편다음 식물을 심고 흙이 촉촉히 젖을정도로 물을준다. 화분위에 유리용기나 유리로 된 프레임을 씌어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을 막고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장시간 물을주지않아도 잘 자란다.

○○여중 김○○

**<자료10> 현대 과학이 당면한 이슈 · 1**

## 현대 과학이 당면한 이슈1 - 항생제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항생물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은 수십 년씩 늘어났고 유아 사망률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폐렴으로 고열과 기침에 사경을 헤매던 사람도 페니실린만 맞으면 거뜬히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패혈증, 결핵도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또 전 세계의 축산 농가들이 이 은총을 받기 위해 앞 다투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산업 사회가 시작되면서 대규모 기업형 낙농업과 축산업이 시작되었는데 전염병이라도 한번 돌면 수천,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직 발병하지도 않은 가축들의 사료에 항생제를 섞여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생제를 섞은 사료를 먹인 가축들은 질병에 대한 저항이 생겨서 그런지 보통 사료를 먹인 가축에 비해 10~15% 정도 빨리 자라주었습니다. 점점 더 사료에 항생제를 섞여 가축에 먹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더불어 고기와 우유와 달걀의 생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나친 항생제 맹신에 미생물들이 반격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성균'이 등장한 것입니다.

– 이은희, 《하리하라의 과학블로그》, 살림 펴냄 –

**▷ 위 글을 읽고 항생제가 인간에게 가져다준 혜택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자.**

항생물질이 발견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수십 년씩 늘었고, 유아 사망률도 크게 떨어졌다. 항생제를 먹인 사료를 통해 가축들은 빨리 자라 고기와 우유의 생산이 늘었다. 그러나 지나친 항생제의 사용으로 내균성이 등장했다. 그래서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한다. 최악의 경우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 세균이 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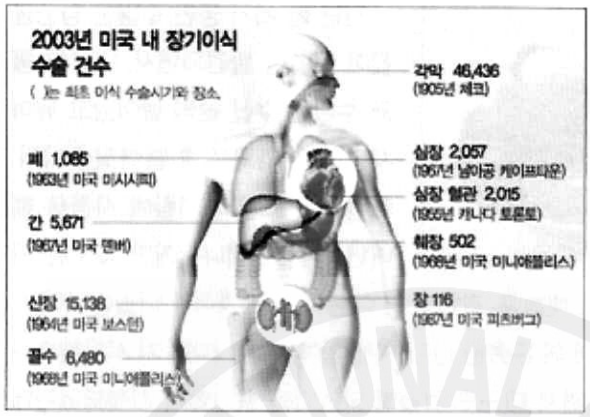
**▷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는 항생제의 경우와 그래서 생기게 된 항생제 내성에 대해 말해보자.**

성장 촉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가축사료에 섞여 먹인 항생제의 잔량이 우리가 먹는 고기나 우유 속에 포함되어 항생제 내성균을 기르고 있을 수도 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기적의 치료제로 쓰이는 페니실린이 선진국에선 별 도움이 되지않는 걸 보면 알수있다. 이렇게 되면 더 강한 내성균이 생겨 위협해질수도 있다.

○○여중 오○○

**<자료11> 현대 과학이 당면한 이슈 · 2**

## 현대 과학이 당면한 이슈2 – 장기이식




장기 이식이 일반적인 의료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장기를 제공하는 뇌사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뇌사자는 법률적으로는 사망한 것이지만, 내부 기관은 모두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사자의 인권'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장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뇌사 판정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식용 장기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다리다가 사망하고 마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이 동물 장기 이식이다.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맞게 유전적으로 조직해서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되면,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 우리 시대의 교양》, 세종서적 –

▷ 장기 이식의 장단점과 장기 이식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자.
뇌사자의 경우 장기 이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에 문제가 된다. 죽은 사람이라고 판정하고 장기 이식을 한 경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후회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에 대한 서약을 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도 좋다.
▷ 동물 장기 이식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동물의 장기를 이용할 경우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다. 그러나 장기 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도 있을수 있다. 또 한 환자가 몸속에 동물의 장기를 갖고 있다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도 있다. 그래도 부작용만 없다면 생명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다.

○○여중 김○○

### ③ 글쓰기

과학 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의 여러 변화된 모습들을 찾아보고,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찬반을 나누어 토론한 후,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실시했다.

<자료12> 글쓰기

**더 이상의 과학 발전은 인류에 해가 된다**

○○여중 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편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과학기술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과학은 인류 발전에 힘써왔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치기 힘들었던 병들도 의학의 발달 덕분에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경우도 있다. 또 이식수술의 발달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삶을 살게 해 주기도 한다. 그런 반면 많은 피해도 있는 게 현실이다. 이식수술의 발달은 우리나라를 성형천국으로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성형에 대한 꿈을 꾸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편하고 좋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우리가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또 인공위성의 발달은 안방에서 각 나라의 여러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지구 밖 우주의 소식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활이 편해지고 좋아진 만큼 우리는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나 가족끼리의 오붓한 저녁시간, 그리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들을 빼앗기고 말았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 생물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다. 해마다 가뭄과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우리 자신들도 언제까지나 안전하지만은 않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생활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지금 편하자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환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개발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의 연구에 대한 것도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어떤 것이 인류에게 바람직한 선택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13> 글쓰기**

##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 도움이 된다

○○여중 강○○

먼 옛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많은 위험과 싸워야 했다. 겨울이 되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죽는 경우도 생겨났고, 전염병이 돌기라도 하면 손도 제대로 써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냈고, 더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더 이상 배가 고파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몸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또 사람의 수명도 더 길어져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온 혜택들이다. 몸이 아프거나 몹쓸 병에 걸리면 죽을 걱정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도움을 받으면 대부분 쉽게 치료된다.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병을 고치는 방법도 찾기 힘들었고 찾았다고 해도 병을 치료하는 동안 환자는 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다. 진통제도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약초나 다른 방법으로 힘들게 치료를 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편하고 좋아졌다.

물론 나빠진 점도 있기는 하다.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자연재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꼭 과학이 발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아주 오래된 시대에도 자연재해나 홍수와 가뭄 같은 것은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이 발달로 인해 지금은 자연재해나 지구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올 거라든가 태풍이 불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도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자원이 고갈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과학의 발전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을 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면 된다. 그런 점에서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좀더 연구하고 발전하면 여러 가지 지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1.3. 평가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외적인 사회현상에 관심을 보인다. '사람도 겨울잠을 잔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는 학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갖게 했다. 힘들 때 자신도 겨울잠을 자보고 싶다거나, 시험을 치르는 기간에 겨울잠에 빠져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과학이 더 발전하여 인간이 원할 때 겨울잠을 자듯 일정시간 의식 없이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오고갔다.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미래의 의학 변화를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했다. 책을 읽기 전이라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고 책을 빨리 읽고 싶다는 반응도 보였다.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된 의학적 사실들을 한 가지씩 발표하게 했더니, 대부분이 책 내용을 생각하며

발표를 잘해 주었다. 교과서보다 딱딱하지 않고 흥미로운 사실이 많아서 좋다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장기 이식에 대한 내용에서는 과학발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으로 서로 다른 입장들을 보였다.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돼서 희망적이긴 하나 동물학대 문제와 악용 가능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과학발전의 결과에 대해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의견이 일치했다.

## 2.2. 미술을 통한 역사읽기 독서지도

### 2.2.1. 도서선정의 의의

미술작품을 통해서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작품 속에는 시대상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순전히 작가의 선택에 의해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의 개인적인 역량이 발휘되었다 하더라도 작가 역시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작가의 사상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기 마련이다.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38]는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원들의 공동 토론을 바탕으로 기획된 책이다. 이 책은 원시 사회에서 조선 시대까지의 미술작품을 사회·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학생들이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미술작품과 미술사를 통해 우리 역사를 폭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확보하고,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상을 조명해 봄으로써 그 시대의 역사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를 선정한 이유이다.

이 책은 미술작품과 역사의 연결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 더 가지게 해 주는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

### 2.2.2. 독서지도 사례

미술작품에 내포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림을 통한 감상과 이해는 객관적이기보다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현대 미술작품의 경우는 그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과거 동굴 벽화나 풍속화 등에는 그 시대 삶의 모습들을 최대한 살려낸 작품들이 많다.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의 미술작품은 그런 이유로 인해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미술사학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다. 그림이나 조각상을 통해 본 과거 역사는 기록과는 또 다른 묘미를 안겨준다. 따라서 독서지도를 통해 가능한 한 역사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습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이해를 돕고 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서 전 활동으로 흥미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38) 전국역사교사모임,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 푸른나무, 2006.

한다. 학생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림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미술작품의 감상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매개물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책 속에 나오는 여러 그림과 조각상들을 보면서 상상하고 추측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근거를 토대로 시대적 상황을 추론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필요한 과정이다.

독후활동으로는 예술작품 감상을 위한 기본자세를 익힌 후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이 있었다. 이와 함께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작품의 경향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배경을 추론하고 확인해 가는 활동은 역사적인 시각과 배경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마지막 활동으로는『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를 읽고 수업을 진행하고 난 뒤, 새롭게 알게 된 역사적 사실과 미술작품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감상문 쓰기가 이루어졌다.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

**<자료14> 통합교과 지도안**

| 중학교 국사 |
| --- |
| 머리말 ·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 |

| 중학교 미술 2 |
| --- |
| 감상하는 마음<br>미술 문화유산 이해 |

| 중학교 생활국어 2-1 |
| --- |
| 4. 내용 구성하여 쓰기 |

| 독서 전 활동 | 독서 후 활동 | |
| --- | --- | --- |
| 그림을 통해 사회적 상황 짐작하기 | 그림으로 역사 읽기<br>(역사, 정치적 상황 알기) | 심화학습<br>(독서감상문 쓰기) |

↕

- 미술작품을 통해 그림을 감상하는 법을 익힌다.
- 그림을 통한 역사 읽기는 통사도 인물사도 아닌, 미술작품과 역사의 연결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한다.
-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른다.

**<표4> 독서지도 계획안(역사)**

| 도 서 명 |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 | 지은이 | 전국역사교사모임 |
|---|---|---|---|
| 지도일시 | 2007년 4월 28일 | 장 소 | 000독서문화원 |
| 활동목표 | 1. 미술작품을 통해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br>2. 미술사학자의 관점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br>3. 미술과 역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지도 대상 | 중 2 |
| | | 차 시 | 1/1 120분 |
| 활동단계 | 교수—학습 활동 | 시 간 | 유의점/자료 |
| 생각열기 | •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br>• 엘리자베스 키스의 '신부 행차'라는 그림을 통해서 192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자.<br>• 그림 속에 나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보자. | 10분 | 미술 영역 |
| 본 활동 | **활동 1. 미술로 역사를 보다**<br>• 구석기인들이 라스코 동굴 벽화를 그린 이유는 무엇인지 짐작해보자.<br>•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용총 수렵도'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br>• 삼국시대 불상들의 특징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제작 의도를 알아보자.<br>• 불상과 불화를 통해 고려시대 사람들의 불교관을 들여다보자.<br>• 조선시대 진경산수화 발달의 사회적 배경과, 그림이 그려진 영·정조 시대를 문예 부흥기라 일컫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자.<br>• 19세기 민중문화의 성장과 관련하여 지배층 사이에 팽배해진 위기의식과 보수·반동화 현 | 40분 | 국사 영역<br>미술 영역 |

| | | | |
|---|---|---|---|
| | 상을 김정희의 「세한도」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br>• 조선시대 민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민화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br>**활동 2. 미술사학과 풍속화**<br>• 김홍도의 『단원 풍속화첩』에 들어있는 「서당」을 미술사학자의 입장에서 그림을 감상, 분석해보자.<br>• 정조시기에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그린 풍속화가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br>• 남종문인화는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가 묻어 나와야 진정한 그림이라고 평가했다. 정조 후 풍속화가 더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양반들의 사고와 관련하여 짐작해보자. | 25분 | |
| **마무리** | • 미술과 역사의 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미술작품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감상문을 써보자.<br>• 미술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볼 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발표해보자. | 30분 | 국어 영역 |
| **다음 차시 예고** | • 다음 필독서 『나무 소녀』에 대한 동기유발하기<br>-마야문명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본다.<br>-과테말라 내전에 대해 설명해 주고 관련 자료 조사해오기. | 15분 | 사회 영역 |

**① 독서 전 지도**

구석기인들에게 사냥은 중요한 생존수단이었지만 사냥 기술이나 도구는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사냥은 생존을 위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며,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사냥 전 그들은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주술(呪術)적 행위로 벽화를 그리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진취적이고 씩씩한 기상을 반영하여 장군총, 쌍영총, 무용총 등 장엄하고 웅대한 미술을 남겼다. 백제의 여러 석탑과 장신구들은 온화하고 섬세하며 우아한 특징을 보여준다. 신라는 소박하고

향토미 넘치는 토기와 토우, 화려하고 정교한 금관 등 금속 공예와 건축물에서 독창적인 미술 문화를 이룩하였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 시기에는 신라를 계승한 화려하고 귀족적인 미술 문화와 상감청자 등 독창적인 도자 공예가 발달하였다. 유교를 숭상한 조선시대에는 실용적인 건축과 공예술이 발달하여 수수하고 서민적인 소박한 정서를 보여준다.[39]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의식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다. 따라서 독서 전 지도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책의 내용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림을 이해하는 방법 못지않게 사회상의 반영이라는 틀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딱딱하게 진행되던 미술이나 역사에 대한 수업에서 벗어나 그림을 이해하고 그림 속의 삶과 역사적 환경을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비교적 삶이 잘 드러나는 책 속의 작품을 중심으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짐작해 보는 활동이 선행되었다.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게 된다.

### ② 독후활동

**<자료15> 그림 속 역사읽기**

라스코벽화

<라스코 벽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에 그려진 이 그림은 구석기인들의 생활모습과

39) 노영자・이인숙『중학교 미술 2』, 교학사, 2005, 60~63쪽.

그들의 생각을 엿볼수있다.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야 했던 구석기인들에게 사냥은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다. 사냥하는 기술이나 도구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건 싸움이었다. 그런 조건에서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일종의 주술같은 행위였다. 사냥감을 벽에 그림으로써 이미 그들에게 잡힌 것과 같아진다. 그 의식을 치르고 나서 용감하게 사냥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술의 시작은 생존을 위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있다. 식량을 얻는 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냥한 짐승의 혼을 기리는 점에서 그들의 생명에 대한 생각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중 원○○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고구려의 진취적인 힘과 기상은 5~6세기 벽화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중 무용총에 그려져 있는 수렵도는 사의 깃털로 장식한 관모나 흑건을 쓴 기마인물 다섯 명이 시위를 당기며, 산에서 사슴과 호랑이를 쫓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북방민족의 기질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사냥하는 모습에서 속도감이 느껴지고 더 생생하게 보인다. 무용총 수렵도를 통해 고구려인들의 힘과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여중 원○○

김홍도의 서당

단원 김홍도는 풍속화로 잘 알려진 화가이다. 서민생활을 주로 그려
소박한 평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 <서당>은 글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다. 한 아이가 훈장님과 다른 아이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다. 우는 아이 등쪽에 책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책읽기를 하다 들킨 것 같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더벅머리
이다. 더벅머리는 총각이하의 계급에서 아이들이 했던 머리모양이다.
그 이전시대에는 더벅머리아이가 서당에서 공부할 수 없었다.
평민신분으로는 서당에서 글을 배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더벅머리가 글공부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아서
김홍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정조의 신분상승 정책으로 중인 계급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 그림 속에서 그전과는
많이 달라진 사회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중 김○○

김정희의 세한도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있을 때인 1844년에 그린 그림이다.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한 처지인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두번씩이나 북경에 가서 귀한 책들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의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준 그림이다. 세한은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나중에 시드는 것을 안다.' 한 공자의 말에서 따왔다고 한다. 어려움을 만나야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그림은 조선후기 정조의 죽음을 틈타 벌어진 풍속화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낀 사대부들이 지식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자부심을 지켜주는 그림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림 하나에도 계층을 대표하는 정신이 들어있고 사회적인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여중 김○○

### ③ 독서감상문

**<자료16> 독서감상문**

○○여중 원○○

역사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미술로 접하는 것도 좋다. 그림이 아니더라도 조각이나 유물 하나에서도 역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문화의 특징과 사회까지 엿볼 수 있다.

흔히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그 시대의 역사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들이다. 역사학자들은 자신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인물이나 사회상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본다. 이에 반해 『미술을 통해 본 역사』는 당시의 생활모습들이 담긴 것은 물론이고, 있는 그

대로의 조상들의 정서와 지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록으로 남긴 역사보다 그림이나 유물로 남겨진 역사들이 더 사실적일 수도 있다.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여자조각상'은 얼굴을 세 점으로 단순화시키고 가슴과 엉덩이를 과장되게 강조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고대 농경사회에서 모계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손 번창이 중요함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기원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또, 삼국시대를 주도한 귀족 세력은 대중들이 어려워하는 불교를 불상을 통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불상의 모습을 온화하고 친근감 있게 표현했다. 그 결과 불교가 번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후기 화가인 김홍도는『단원풍속화첩』속 '서당'이라는 제목의 그림에서 댕기머리를 하고 훈장에게 글공부를 하는 서민층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양반들의 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힘이 커지게 되고, 서민층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밖의 고분이나 벽화, 조각, 유물 등도 우리가 보기에 신기하고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역사가 참 재미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역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나 역사를 배우기 전에 한국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막상 배우려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특히 학생들에게는 재미없게 외워야만 하는 공부로 다가오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처럼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미술을 역사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딱딱하고 재미없게 생각되었던 역사와 미술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배우니까 쉽고 재미있었다. 미술이 싫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통해서 역사를 익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 2.2.3. 평가하기

책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읽는 것이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책을 읽은 경우에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수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다음 차시에 수업할 필독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인다. 그런 반응은 전에 읽은 텍스트에 대한 흥미가 다음 텍스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읽기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먼저 읽었던 책에 대한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텍스트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라는 제목을 확인한 학생들은 실망스런 표정이었다. 우선 소설이 아니라는 점과 그림이 곁들여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책과 친숙해지기 위한 활동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림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 유명한 국내외 작가가 그린 그림 몇 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림 속 내용으로 들어가서 작가가 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림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후에 텍스트 속에 나와 있는 익숙한 그림 몇 점을 가지고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역사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그런 분위기로 그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돌아가며 발표하도록 했는데 비교적 잘 대답해 주었다. 물론 어떤 생각을 말하든지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 존중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그랬더니 책의 내용과 비슷하게 혹은 다른 입장에서 얘기들이 오고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책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텍스트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독후활동에서는 먼저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된 시대적 상황 한 가지씩 발표하게 하고 본 활동에 들어갔다.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이나 작품을 골라서 얘기하게 했다. 그 결과 그림 속에서 역사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그림을 통한 역사 수업이 이루어졌다. 그림은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시대적 상황을 알고 감상했을 경우 한층 더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었다.

## 2.3. 인물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

### 2.3.1. 도서선정의 의의

인물의 삶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는 타인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학생에게 매우 효과적인 지도방법이다.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가진 경우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현실적 삶의 모습과 태도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다. 인물이 살았던 시대가 현재와 가까울수록 결과는 더 긍정적으로 유도된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40]는 우리 겨레의 큰 스승인 함석헌이 살았던 20세기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온 힘을 다해 자유와 평화를 일구려 했던 함석헌은 갈등하고 고뇌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평생 '승자'의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우리시대의 한 사람이다. 현대 민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에도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익숙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적 인물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함석헌의 비폭력 평화주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에서 좀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을 필독서로 선정한 이유이다.

### 2.3.2. 독서지도 사례

인물 읽기를 통한 독서지도는 자칫 인물의 사상과 연결해서 종교에 대한 경외나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함석헌은 기독교를 사상의 뿌리로 간직한 사람이었지만, 후년에 이르러서는 기독교를 대

40) 김성수,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봄나무, 2006.

자유의 정신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함석헌의 사상의 출발점이 기독교 신앙인 까닭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독서지도는 학습자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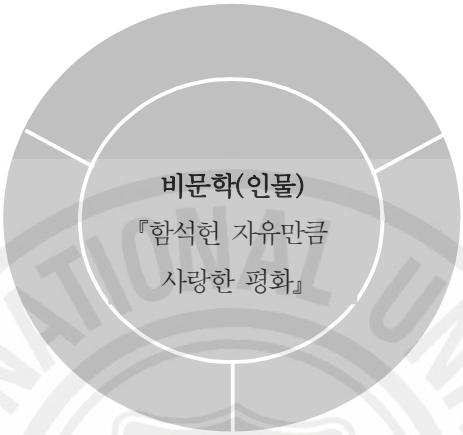
독후활동으로는 인물·역사 연표 읽기를 통해 인물이 살았던 역사적 환경을 이해하고, 국내외 정세를 통해 인물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한다. 역사적 환경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인물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를 현실의 변화와 관련시켜 주목하는 깊이 있는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다양한 인물들을 각자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인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정리할 수 있었다. 같은 시대 또는 비슷한 환경을 살았던 다른 인물들과의 비교를 통해 삶에서 보여준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찾아보고 만약 자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본다. 또한 비슷한 사상을 가진 다른 인물의 삶은 어떠했으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 수 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

**<자료17> 통합교과 지도안**

| 중학교 도덕 2 |
| --- |
| Ⅱ. 바람직한 국가, 민족 생활 |




| 중학교 국사 | 중학교 사회 2 |
| --- | --- |
| X. 대한민국의 발전 | Ⅶ. 사회생활과 법 규범 |

| 독서 전 활동 | 독서 후 활동 | |
| --- | --- | --- |
| 분단과 이데올로기<br>민족과 민족주의 | 인물・역사 연표 | 인물 비교<br>(벤 다이어그램) |

↕

・민족과 민족주의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실의 민족주의를 되돌아본다.
・인물과 역사의 연표읽기를 통해 한 인물의 삶에 역사적 환경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같은 생각, 다른 선택을 한 인물들이 비교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삶의 중요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추이를 비교해 보고, 내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표5> 독서지도 계획안(인물)**

| 도서명 |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 지은이 | 김성수 |
|---|---|---|---|
| 지도일시 | 2007년 7월 14일 | 장 소 | 000독서문화원 |
| 활동목표 | 1. 함석헌의 삶을 현대사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br>2. 함석헌과 다른 인물들이 걸어간 길을 비교할 수 있다.<br>3. 함석헌의 사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 지도 대상 | 중 2 |
| | | 차 시 | 1/1 120분 |
| **활동단계** | **교수—학습 활동** | **시 간** | **유의점/자료** |
| 생각열기 |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br>• 함석헌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통해 참된 친구에 대해 생각해본다.<br>• 민족과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 15분 | 도덕 영역 |
| 본 활동 | **활동 1. 씨알의 소리**<br>• 함석헌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인가? 1919년 그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br>• 오산학교를 다니게 된 배경과 그곳에서 가진 생각의 변화는?<br>• 해방이 된 후, 함석헌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오게 된 까닭은?<br>• 그가 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의 내용은 무엇이었나?<br>• 70세가 된 함석헌이 『씨알의 소리』를 창간한 목적은 무엇인가? | 20분 | |
| | **활동 2. 시대의 스승**<br>•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br>•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생각해보자.<br>• 민족주의의 긍정성과 부정적인 경우를 찾아보자.<br>• 함석헌의 세계주의에 대해 알아보자.<br>• 함석헌을 시대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 30분 | 국사 영역<br>·<br>도덕 영역 |

| | | | |
|---|---|---|---|
| | 무엇인가?<br>**활동 3. 갈림길에 서서**<br>• 함석헌과 안중근이 선택한 길을 비교해 보자.<br>•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 25분 | 사회 영역 |
| **마무리** | • 함석헌의 사상과 신념을 통해 인물의 삶을 정리해 본다.<br>• 함석헌의 삶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 | 20분 | |
| **다음 차시 예고** | • 다음 필독서『아우를 위하여』를 읽기 위해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br>• 작가가 가져야 할 시대정신에 대해 생각해 본다.<br>• 지금의 사회현상을 배경으로 글을 쓴다면 어떤 상황을 주제로 쓸지 이유와 함께 생각해 본다. | 10분 | 국어 영역 |

**① 독서 전 지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를 읽기 전 인물의 삶과 사상에 관한 배경지식을 갖도록 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김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남과 북이 분단이 되는 역사적 현실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민족에 대한 생각과 민족주의를 생각해 본다. 민족이란 같은 핏줄을 이어받고,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41] 민족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족도 앞으로 역사의 전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핏줄과 언어가 같고 문화와 역사를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같은 운명을 지니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자각할 수 있는 민족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의미에서 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먼저 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민족과 민족주의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했다. 또한 발전하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민족주의는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졌다.

41) 국정도서편찬위원회,『중학교 도덕 2』, 교육인적자원부, 2007, 156쪽.

② 독후활동(인물연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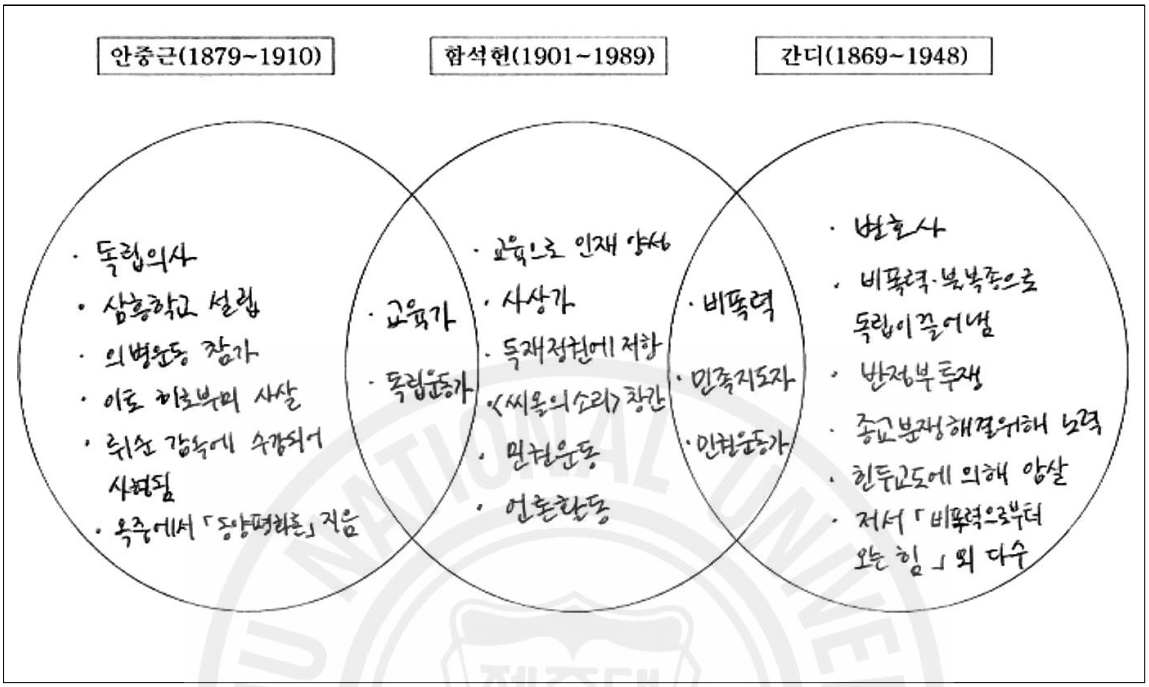
**<자료18> 인물연대기**

| 인물(함석헌) 연표 | 역사 연표 |
|---|---|
| ▷ | ····· 1895년 청일전쟁 끝남 (1894~1895) |
| ▶ 1901년 평안북도에서 출생 | |
| ▷ | ····· 1910년 일제강점기 |
| ▶ 1919년 3.1운동에 참가 | ····· 1919. 3.1운동 |
| ▶ 1921년 오산학교 편입 | |
| ▶ 1923년 동경유학 | |
| ▶ 1928년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 | |
| ▶ 1934년 『성서조선』에 「성서적 입장에서본 조선과현재 (1934.2~1935.12) | |
| ▷ | ····· 1937년 중일전쟁 |
| ▷ | ····· 1941년 일본 진주만 공습 |
| ▷ | ····· 1945년 ( 해방 ), ( 신의주 )학생의거 |
| ▷ | ····· 1948년 ( 남북한 정부 ) 세움 |
| ▷ | ····· 1949년 김구 피살 |
| ▷ | ····· 1950년 ( 6·25 전쟁 ) |
| ▶ 1958년 『사상계』에 실린 (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로 20일간 구금됨. | |
| ▷ | ····· 1960년 ( 4·19혁명 ) |
| ▷ | ····· 1961년 ( 5·16쿠데타 ) |
| ▶ 1970년 ( <씨알의소리> ) 창간 | |
| ▷ | ····· 1972년 10월 유신 |
| ▶ 1976년 3·1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 |
| ▶ 1979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됨 | |
| ▷ | ····· 1979년 박정희 사망 |
| ▶ 1980년 ( (씨알의소리) 폐간 | |
| | ····· 1980년 ( 5·18 광주민주화 ) 운동 |
| ▶ 1988년 『씨알의 소리』 복간 | |
| ▶ 1989년 사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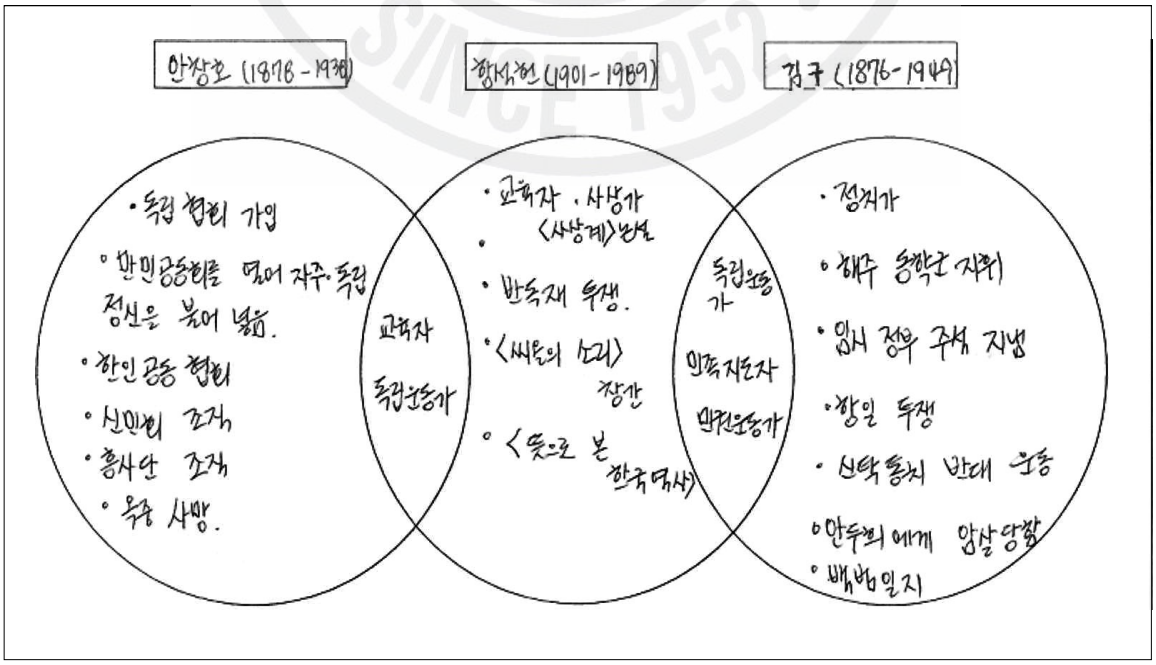
○○여중 김○○

③ 인물 비교(벤 다이어그램)

**<자료19> 벤 다이어그램**




○○여중 강○○




○○중 김○○

### 2.3.3. 평가하기

어떤 책을 읽든지 책을 읽기 전에 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읽게 되면 독해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물에 대한 책을 읽는 경우 대부분 역사적 인물로 익숙한 대상을 선정해서 읽게 된다. 그렇더라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흥미를 가지고 책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함석헌의 경우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도 학생들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삶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학생들은 의외로 현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2] 독서 전 지도로 역사적 상황과 민족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함석헌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민족이란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수준에서 짚고 넘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더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읽는 중에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에 줄을 그어가며 읽어오게 했는데, 이는 정독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독후활동으로 인물연표를 통해서 국내외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훑어보았다. 학생들에게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다른 인물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상과 행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함석헌이 새로운 역사적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다.

42) 학생들은 수업 중에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엉뚱한 대답을 한다. 일제강점기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 해방이 되었는지, 한국전쟁은 어떤 과정에서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 Ⅳ.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과 논의

## 1. 조사 결과 분석

설문지를 통해 독서지도 전·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6> 설문 결과** (단위 %)

| 설문 주제 | 문항 내용 | 지도 전 | 지도 후 | 증감 |
|---|---|---|---|---|
| 1. 한 달에 읽는 책의 권수 | ① 거의 읽지 않는다. | 33 | 0 | -33 |
| | ② 1~2권 정도 | 42 | 33 | -9 |
| | ③ 3~4권 정도 | 25 | 50 | +25 |
| | ④ 5권 이상 | 0 | 17 | +17 |
| 2. 일주일에 책 읽는 시간 | ① 1시간 미만 | 42 | 0 | -42 |
| | ② 1~3시간 | 58 | 42 | -16 |
| | ③ 3~5시간 | 0 | 50 | +50 |
| | ④ 5시간 이상 | 0 | 8 | +8 |
| 3. 책을 고르는 방법 | ① 교사나 부모님의 권유로 | 8 | 50 | +42 |
| | ② 친구가 추천해줘서 | 0 | 0 | 0 |
| | ③ TV나 신문광고를 보고 | 0 | 0 | 0 |
| | ④ 보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한다. | 92 | 50 | -42 |
| 4. 읽는 책의 종류 | ① 문학작품 | 42 | 25 | -17 |
| | ② 판타지 소설(추리소설 포함) | 33 | 0 | -33 |
| | ③ 과학, 역사, 철학 | 0 | 0 | 0 |
| | ④ 골고루 | 8 | 75 | +67 |
| | ⑤ 기타 (만화책 외) | 17 | 0 | -17 |
| 5. 독서습관 | ① 꼼꼼하게 끝까지 읽는다. | 25 | 50 | +25 |
| | ② 필요한 부분만 가려서 읽는다. | 0 | 17 | +17 |
| | ③ 대충이지만 끝까지 읽는다. | 50 | 33 | -17 |
| | ④ 읽다가 싫증이 나면 중도 포기한다. | 25 | 0 | -25 |
| 6. 중학생의 책 읽기에 대한 생각 | ① 반드시 읽어야 하며 계속해서 읽을 것이다 | 0 | 58 | +58 |
| | ② 필요하지만 읽기 싫다. | 58 | 25 | -33 |
| | ③ 필요성은 느끼나 공부가 우선이다. | 25 | 17 | -8 |
| | ④ 꼭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 | 17 | 0 | -17 |
| 7. 독서와 교과학습에 대한 생각 | ① 많은 도움이 된다. | 8 | 33 | +25 |
| |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0 | 58 | +58 |
| | ③ 도움이 될 것이다. | 58 | 0 | -58 |
| | ④ 그저 그렇다. | 25 | 8 | -17 |
| | ⑤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 8 | 0 | -8 |

위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는 독서지도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2차례 진행되었다. 독서지도 전의 조사는 수업을 시작하기 1주일 전인 2006년 8월 26일에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독서활동을 함께 할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독서습관과 관련하여 설문 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항목에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한 독서지도 후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 수업이 진행되는 2007년 8월 25일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동안의 수업과 관련하여 간단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책을 가까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과학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책 읽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속해서 독서를 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 2. 독서능력의 변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1년간의 통합교과 독서지도는 책읽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교과연계를 통해 교과 외적인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가 유발되었다. 이러한 학습자의 내적 변화는 상당부분 독서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여 지속적인 독자의 삶을 걷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독서에 대한 인식과 활동의 변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과학습을 위한 시간이 아닌, 독서를 위한 시간 할애가 중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보다 수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한 달에 읽는 책의 권수에서 확연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활동 전에 책을 거의 읽지 않거나 1~2권의 책을 읽는다고 답했던 75%의 학습자가 최소한 1~2권 내지는 3~4권을 읽게 되었고 5권 이상을 읽는 경우도 17%가 되었다. 이는 독서지도를 통해 정해진 필독서를 읽게 한 경우 외에 다른 도서로의 읽기 유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일주일에 독서를 하는 시간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일주일에 1시간 미만으로 책을 읽던 42%의 학생들이 1~3시간으로 독서시간이 증가했고, 3시간 이상 독서를 하는 학생의 경우도 58%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행 전에 전무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책을 읽는 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읽는 시간이 증가한 결과다.

책을 고르는 방법에 있어서도 90%가 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과 달리 교사나 부모님의 권유로 양서를 가까이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스스로 책을 선택하는 경우에 실행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장르와 질을 고려하지 않는 무작위 독서가 이루어진 반면, 실행 후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권장도서 목록과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독서지도 후 도서의 선택 시 유익한 텍스트를 고르려는 노력이 엿보임을 알 수 있다.

읽은 책의 장르에서는 지도 전 75%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문학작품이나 판타지, 추리소설 등 흥미중심으로 책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만화나 폭력적인 글과 그림이 섞인 책을 읽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책이 주는 유익함과 해로움을 인지하지 못한 무분별한 선택의 결과이며 심심해서 읽게 되는 경우에서 온 결과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학습만화의 경우, 한국 근·현대 소설이 만화로

출간되어 원작과는 전혀 다른 느낌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 바람직한 문학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당연하다. 독서지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효과는 무엇보다도 흥미위주로 이루어지던 편독현상이 많은 부분 해소되었고, 분야별로 다양한 장르에 걸쳐 골고루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성과로 나타났다.

독서습관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읽다가 싫증이 나면 중도 포기하는 현상을 보이던 경우(25%)는 대충이지만 끝까지 읽는 경우(33%)로 바뀌었고, 비문학의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읽거나, 정보를 얻고 여러 면에 유익하다는 입장에서 끝까지 읽게 되는 현상을 보였다.

책읽기에 대한 태도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드러냈다. 활동 전에는 83%에 해당하는 상당수가 필요하지만 읽기 싫다거나, 필요성은 느끼지만 공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독서지도 후 반드시 읽어야 하며 계속해서 읽을 것이라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했다. 이로써 꾸준한 독서지도를 통해 독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독서지도의 목표이기도 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평생 독서자를 만드는 데 효율적인 독서지도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서와 교과학습에 대한 생각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교과연계 독서가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58%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경우도 25%나 증가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독서 전에 예상했던 결과를 실제 독서 후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과연계 독서가 교과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것은 실제로 독서를 통해 학습이해와 독해력이 나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독서지도 전·후의 상황은 전략적인 지도방법을 통해 독서능력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과와 연계한 심화학습 활동으로 행해진 읽기는 학습자에게 독서동기를 유발시켜 읽기 기능과 전략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숙달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난이도가 적절한 도서를 선택하면 학생들이 읽기 오류를 적게 범하면서도 충분하게 이해하여 독해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이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독후활동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난다.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과 독서지도는 독서에 대해 전반적인 긍정성을 이끌어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교과와 연계된 통합교과 독서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의식변화와 교과학습에 대한 폭넓은 이해, 꾸준한 독서를 유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독서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로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관여가 가능했던 소그룹 독서지도라는 점과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정기적이고 꾸준한 네트워크가 가능했던 점에서 큰 변화를 드러낼 수 있었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교현장의 경우 교과별 교사 간의 교류와 독서지도에 대해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 3. 독서태도와 독서인식의 변화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독서결과 및 독서경험에 대한 독자의 인식이다.[43]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의 독서행동으로부터 유래되는데,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독서경험이다. 학생들의 경우, 여가활용에 대한 갈등은 교과학습 외에도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오락을 선택함으로써 독서태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독서를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맛본 경우에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유도한다.

독서능력과 독서태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만족스런 독서경험은 독서에 대한 태도변화를 가져온다. 읽기태도에 있어서도 수준에 비추어 난이도가 적절한 도서선정은 태도에 영향을 준다.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도서는 지루함을 주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내용인 경우 심적, 인지적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읽기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적절한 도서선정이 학습자의 독서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는 동기를 강화시켜주어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과와 연계된 독서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독서태도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교과이해를 위한 독서체험은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했다. 그들은 교과학습을 위해서 혹은 심화학습의 방법으로 독서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또래 집단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은 학습자들에게 즐거운 독서의 경험을 제공하고 따라서 독서활동으로 인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태도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1년 동안의 다양한 장르에 걸친 꾸준한 독서와 독서활동은 학습자들에게 독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독서가 막연히 교과학습과 삶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학습자들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다. 또한 교과학습에 있어서도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학습이 단순히 지식체계로 이루어진 이론이 아니라 삶에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독서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책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독서와 관련된 인식의 체계이다. 인식에 따른 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지만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장점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독서활동을 통한 자발적 읽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존에는 개인적 읽기에 따라 쓰기 중심, 결과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되어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소집단을 중심으로 한 또래 집단의 활동은 독서에 대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 상호 소통되는 과정에서 독서습관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체 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독서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읽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읽는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만한 과학적인 기준이 전무한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이유는 학문적 연구 성과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도 발견된다. 효율적인 독서지도를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43) 한철우 외, 앞의 책, 67쪽.

# Ⅴ. 결론

독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로 구성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 따라서 독서능력은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임은 물론 의미 구성을 통해 독자 나름대로의 세계를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서가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강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흔히 학교에서 방학이 되면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독후감 쓰기 숙제는 책에 대한 반감만 가져오고 읽기가 자칫 쓰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즐거움을 동반한 읽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실천적인 독서지도를 통해 읽기 자체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학습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독서환경이 열악한 중학생의 경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독서활동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꾸준한 독서가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좋아하는 책을 중심으로 한 편독 현상이 두드러진 것도 중학생의 독서습관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다.

본 연구에서의 독서지도는 독서 동기유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고 좋은 독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와 연계된 독서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양서읽기 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과와 연계하여 독서지도를 실시한 결과 학습 능력 신장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학생들에게 읽기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 교과와 연계된 독서 자료는 학습자가 배경지식이 없거나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보충해 줌으로써 교과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교과서의 학습을 심화하여 내면화·외면화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교과학습에 부담을 느끼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간의 독서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기유발의 방법으로 교과와 연계된 통합교과 독서지도를 함으로써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들을 통해 교과서를 보충하고 심화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과연계 독서지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한 과목을 중심으로 주제와 영역별로 지도가 이루어지는 반면, 본 연구는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교과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교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차별적인 면모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1년간의 통합교과 독서지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과와 연계된 텍스트 읽기는 학습자에게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독서를 통해 학습자는 교과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교과에 대한 흥미도 높아졌다.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더 발전되어 독서가 단순히 학습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독서를 통한 지식의 누적된 결과는 내면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도와준다. 그 결과 학습자는 독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꾸준한 독서의 기회와 삶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교과와 연계된 텍스트 읽기는 텍스트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한다. 교과서의 경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과는 다른 입장에 있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저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를 접하는 학습자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생각을 깊게 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 사고력의 발달적 측면에서도 수용적 입장보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이 긍정적이다. 그런 면에서 교사의 역량이 강조된다. 교사는 학습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교과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이해를 깊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교과와 연계된 텍스트 읽기는 삶에 대한 능동적 자세를 가지게 한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삶과 경험을 연관시켜 사고함으로써 내면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가치관의 변화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결국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한 행동의 변화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여러 현상들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교과와 연계된 텍스트 읽기는 청소년의 가치관 함양에 도움을 주고,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져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다.

독서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아실현을 성취하게 하고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태도를 기르는 중요한 수단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독자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 좋은 책으로서의 가치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책 자체가 지니는 가치보다는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능숙한 독자는 필요에 의해 원하는 자료를 잘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된 자료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달리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독서 교육은 단순히 읽기나 쓰기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간교육이며, 인성교육이고 사고력을 신장시켜 주는 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독서 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삶의 변화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여 삶의 질을 높여준다. 특히 청소년인 경우, 독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해 주어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시켜 준다. 또한 독서지도는 평생 독서자의 삶을 유도함으로써 인생전반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높여준다.

# 참고 문헌

## <자료>


교육부.『중학교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국사편찬위원회.『중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정도서편찬위원회.『중학교 국어 2-1』.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정도서편찬위원회.『중학교 도덕 2』.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정도서편찬위원회.『중학교 도덕 3』. 교육인적자원부, 2007.

김성수.『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봄나무, 2006.

노영자・이인숙.『중학교 미술 2』. 교학사, 2005.

박지원.『청소년을 위한 연암 박지원 소설집』. 서해문집, 2006.

빅토르 위고.『노트르담의 꼽추』. 전혜경 옮김. 혜원, 2005.

셧클리프, 아서 외.『청소년을 위한 케임브리지 과학사 1-생물・의학 이야기』. 조경철 옮김. 서해문집, 2006.

이광만 외.『중학교 과학 3』. 지학사, 2007.

전국역사교사모임.『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 푸른나무, 2006.

차경수 외.『중학교 사회 2』. 교학사, 2007.

한국교원대・고려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생활 국어 2-1』. 교육인적자원부, 2007.


## <단행본>


김경일.『독서교육론』. 일조각, 1982.

김슬옹.『통합교육을 위한 삶 쓰기 논술 교육』. 인간과자연사, 2000.

독서지도연구회.『독서지도사전』. 경인문화사, 1975.

베이커, 어윈.『독서지도방법』. 한철우・천경록 역. 교학사, 2000.

손정표.『신독서지도방법론』. 태일사, 2005.

송재희・김슬옹.『대중매체 읽고 쓰고 생각하기』. 세종서적, 2002.

신헌재 외.『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박이정, 1998.

애들러 모티머 J.・도렌 찰스 반.『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독고 앤 역. 멘토, 2000.

어윈, J. W.『독서지도론』. 천경록・이경화 역. 박이정, 2003.

이경화.『읽기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2004.

이재승.『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1997.

전경원.『창의성과 동기유발』. 창지사, 2003.
천경록・이재승.『읽기 교육의 이해』. 우리교육, 1997.
한국독서학회.『21세기 사회와 독서지도』. 박이정, 2005.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교재집필연구회.『독서 자료론・독서지도 방법론』. 위즈덤북, 2006.
한철우 외.『문학중심 독서지도』. 대한교과서, 2004.
형지영.『창의력을 신장시키는 통합적 독서교육 상・하』. 인간과자연사, 2001.

**<논문>**

김마리아.「문학텍스트를 활용한 사고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김복희.「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과정중심 독서지도의 방법과 실제」.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소영.「독서자료를 활용한 수학학습지도가 학업 성취도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김정숙.「학습방법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은영.「소설중심의 독서교육 방법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남영은.「교과연계 독서지도를 통한 문학작품 읽기 능력 신장 방안」.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문선희.「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독서지도 방안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민병림.「효율적인 독서지도 과정과 독서력 신장」.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민희동.「효과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박경숙.「읽기 영역으로서의 독서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박미정.「내용교과 독서가 교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백진현.「독서실태 분석을 통한 독서 지도 방안 연구」. 부경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서기문.「독서요법을 활용한 독서지도 방법과 효과에 관한 연구」. 전주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송미아.「소그룹과 가정에서의 독서지도를 통한 독서습관 형성 방안 연구」. 제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신상곤.「중학교 국어과 교육의 독서지도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8.
신운선.「발달적 독서 지도를 통한 독서 수업 연구」. 경기대 국제문화대학원 석사논문, 2004.
유연희.「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윤은희.「독서 클럽 활동을 통한 문학지도 방법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윤종수.「중학생의 효율적인 독서 지도 방안」. 금오공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윤홍로.「독서 클럽 활동을 통한 문학지도 방법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이경희.「중학교 사회 2 교과서의 난이도 분석」.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이민주.「주제 중심의 문학 작품 독서 교육 방법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이은희.「문학 독서클럽의 토의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이현주.「국어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중학교 독서지도에 관한 연구」. 여수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장경실.「학습자 중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으로서 교과연계 독서교육에 관한 모색」.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장 훈.「독해 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지도 모형 연구」. 제주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정원락.「다양한 讀書프로그램을 活用한 讀書習慣 形成 方案 硏究」. 경덕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전창실.「효과적인 독서지도 방안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조성균.「독서 흥미와 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공주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홍영란.「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Abstract

# A study on the guidance method for reading with a motivation

— focusing on the guidance method for reading
in the integrated subj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

Kim Mi-j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yung-taek)

This study is composed in order to feel keenly the necessity of making an atmosphere for the motivation to a reading and to plant a positive view to reading. The continuous and effective reading activities are difficult for middle school students because they have a burden of entering to an advanced school and have to give more weight on the learning subjects. Namely, they are in poor surroundings for the reading activity. Like this, because middle school students are likely to keep away from books, we have to make the positive view to a reading for them with focusing on the guidance method for reading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which can helps to learn subjects.

This writer intended to observe the change of reading ability for 1 year. The object of this research are two group with 6 members, who are the second year students of middle school. Every month, two text are selected. So they read carefully 24 books for 1 year. So as to operate this study, I set up the basic policy as follows.

First of all, I set about giving an interest and motive for a reading by focusing on the reading activity connected with subj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ly, I induce the in-depth thought process by understanding and being contact with the fragmentary and superficial contents of subjects more widely through the reading activity.

Thirdly, the learning connected with subjec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ading program can lead the practical and well-balanced reading activity.

In the second chapter, there is a discussion about the activities connected with subjects for the motivation. The interest on books work as a main cause that can

read books with fun. And this is continued to the fruit and satisfactory experience for the reading. Also, the various material of reading connected with subjects can help a learning and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learner. And moreover, it can give the versatile viewpoint in problem-solving. This process and activity strengthens a positive attitude for reading. In other words, various reading activities are also useful for the learning of the content-subject.

In the third chapter, I divided the integrated subject into a literature and non-literature, and apply it to reading activities with various ways. The integrated subject is an activity connected with subjects can make full use of subject like language, social studies, history, art etc. through the curriculum of school. I selected the various book connected with subjects and revealed the connection with the subject according to the theme and contents. And then, I use the various guidance model of the reading in order to realize more efficient class.

As a guidance method for reading, two activities are designed. The activity before reading can make the motivation and the activity after reading can promote the understanding. In the former, the activity to understand the condition of the day and social situations is precede so as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ext and draw the interest. In the latter, various materials are presented to make understanding of text and advanced learning. As well, through this after-reading activity, I incitement that students can reconstruct the meaning in multilateral dimension overcoming the boundary of subjects. Reading materials connected with subjects prevent the difficulty of learner from the lack of background knowledge and help them understand the text book by enlarging the general knowledge.

The contents of the fourth chapter is a result of the activity. That is, the result is formed by motivation through the guidance of integrated subject for reading and those steady reading activity. The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eading activity connected with subjects gives a positive view for reading to learner. Through reading, the understanding of text book is promoted, and the interest for subjects is also increased. This experience of reading can give a positive view about reading.

Secondly, the reading activity connected with subjects can make a critical view to the text and social state. The learner meet a various case different from the subjects when they read the text. And then, they can form a receptive and critical attitude from various viewpoint.

Thirdly, the reading activity connected with subjects can form an active attitude to a life. In the course of reading and understanding of text, the learner thinks it relating to his life. It gives a chance of sincere self-examination to learner and

make a change in behavior. This activity offers the learner a chance of active participation to society.

The guidance method for reading in the integrated subj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could make a motivation to reading through the extension of learning ability relating to the subjects. This will be a footing to incitement the change of recognition for reading, the broader understanding for learning of subjects, and the steady reading activity. Also, it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mphasis on necessity of guidance for the steady and systematic reading activity.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
SINCE 1952

## ■ 부록 1. 중학생의 독서생활에 대한 설문

1. 여러분은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나요?
   ① 거의 읽지 않는다.　　② 1~2권 정도
   ③ 3~4권 정도　　④ 5권 이상

2. 일주일에 책 읽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① 1시간 미만　　② 1~3시간
   ③ 3~5시간　　④ 5시간 이상

3. 책을 고를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나요?
   ① 교사나 부모님의 권유로　② 친구가 추천해줘서
   ③ TV나 신문 광고를 보고　④ 보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한다.

4. 주로 어떤 책을 읽게 되나요?
   ① 문학작품 ② 판타지 소설(추리소설 포함) ③ 과학, 역사, 철학
   ④ 골고루　⑤ 기타(만화책 외)

5. 여러분의 독서습관은 어떤가요?
   ① 꼼꼼하게 끝까지 읽는다.
   ② 필요한 부분만 가려서 읽는다.
   ③ 대충이지만 끝까지 읽는다.
   ④ 읽다가 싫증이 나면 중도에서 포기한다.

6. 중학생의 책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반드시 읽어야 하며 계속해서 읽을 것이다.
   ② 필요하지만 읽기 싫다.
   ③ 필요성은 느끼나 공부가 우선이다.
   ④ 꼭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

7. 독서가 교과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① 많은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될 것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부록 2. 월별 필독서

| 월 별 | 분 야 | 필독서 명 | 지은이 | 관련 교과 |
|---|---|---|---|---|
| 2006년 9월 | 철학 | 머릿속을 헤엄치는 지혜 물고기 | 최은규/꿈소담이 | 도덕・사회・가정 |
| | 외국문학 |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 하이타니 겐지로/양철북 | 국어・도덕 |
| 10월 | 환경 | 꿈푸, 꿈비의 신나는 환경탐험기 | 삼성엔지니어링꿈나무푸른교실/동아시아 | 사회・도덕・과학 |
| | 외국문학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톨스토이/창비 | 도덕・국어 |
| 11월 | 문학 | 어떤 솔거의 죽음 | 조정래/다림 | 국어・사회 |
| | 외국문학 | 검은 고양이 | 애드거 앨런 포/가지않은길 | 국어・도덕・가정 |
| 12월 | 경제 | 한상도의 우당탕탕 경제특급작전 | 한상도/주니어김영사 | 사회・도덕・수학 |
| | 외국문학 |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가지않은길 | 국어・도덕 |
| 2007년 1월 | 외국문학 | 대지 | 펄 S.벅/혜원 | 국어・사회 |
| | 역사 | 인류이야기 2 | 임영태/아이필드 | 역사・도덕 |
| 2월 | 음악 | 청소년을 위한 서양 음악사 | 이동활/두리미디어 | 음악・사회 |
| | 문학 | 연어 | 안도현/문학동네 | 국어・과학 |
| 3월 | 과학 | 청소년을 위한 케임브리지 과학사 1 | 아서 셧클리프/서해문집 | 과학・사회・도덕 |
| | 고전 | 청소년을 위한 연암 박지원 소설집 | 박지원/서해문집 | 국어・역사・도덕 |
| 4월 | 외국문학 | 노트르담의 꼽추 | 빅토르 위고/혜원 | 국어・사회・도덕 |
| | 역사 |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 | 전국역사교사모임/푸른나무 | 역사・미술・사회 |
| 5월 | 외국문학 | 나무소녀 | 벤 마이켈슨/양철북 | 국어・사회 |
| | 외국문학 | 로미오와 줄리엣 | 윌리엄 셰익스피어/가지않은길 | 국어・도덕 |
| 6월 | 외국문학 | 커피우유와 소보로빵 | 카롤린 필립스/푸른숲 | 국어・사회・도덕 |
| | 문학 | 표본실의 청개구리 | 염상섭/맑은소리 | 국어・과학・도덕 |
| 7월 | 인물 |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 김성수/봄나무 | 도덕・역사 |
| | 문학 | 아우를 위하여 | 황석영/다림 | 국어・사회 |
| 8월 | 미술 | 조선의 글씨를 천하에 세운 김정희 | 조정육/아이세움 | 미술・역사・도덕 |
| | 외국문학 | 인형의 집 | 헨리크 입센/청목 | 국어・도덕 |